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산업

제 1181 호
(2025년 5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와 정책 협약 체결 / 04
- 해양수산부-원양업계 간 간담회 추진 / 05
- 원양산업 재도약 위한 연구용역 업무협의회 개최 / 06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관련 안내 / 06
- 원양업계 선박선원 관련 현안 간담회 및 협의 추진 / 07
- 해수산자원원 개발산업인 원양산업 / 08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09



이달의 요리

- 콩치조림 / 15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6
- 5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599달러

■ 참치어업 동향

- WTO, 관세 불확실성으로 국제 무역 위축 예상 / 17
- 美 규제완화명령, 태도국 참치 조약에 여파 우려 / 18
- 중국, 미국에 보복 관세 / 19
- IOTC, 가다랑어 쿼터 최초 도입 / 20
- IOTC, 눈다랑어 TAC 15% 증량 승인 / 21
- IOTC, 각국 선단에 가다랑어 TAC 할당 / 22
- NGO, IOTC 가다랑어눈다랑어 쿼터 도입 호평 / 24
- 중서부태평양 3월 어획량, 노력량 모두 증가 / 25
- 日 냉동 눈다랑어 3월 수입량, 전년도 대비 47% 증가 / 26
- 日 2025년 3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 27
- 日, 인도양 참치연승 신조선 출항 / 28
- 美 달러 약세, EU 참치 수입업계에 호재 / 29
- MSC 인증 참치 매출, 24/25년도 대폭 성장 / 30
- EU 자속 로인 수출, 2024년에 급성장 / 31
- 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 NOAA 업무 진행 위협 / 32
- 트럼프, 미사모아 보호수역 참치어업 등 개방 / 33
- 日, 참치 지방 12초 내 식별 기술 개발 / 34
- 세계 참치의 날 / 35

원양산업 제1181호 발행 2025년 5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영규**
 편집인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中 선단 냉동 오징어, 높은 가격대 유지 / 36
-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출 신기록 수립 / 36
- 中 오징어 선단, 다시 페루 접근 / 37
- 트럼프 관세로 미-중 오징어 무역 중단 / 38
- 페루 오징어 가격 급락 / 39
- Alpescas, 지속 가능한 오징어 어업 관리 요청 / 40
- 포클랜드 로리고 오징어, 첫 어기 종료 / 41

■ 명태어업 동향

- 러, 24년 190만 톤, 49억 달러의 수산자원 수출 / 41
- 러 명태 H&G 가격, A시즌 종료 후 소폭 하락 / 42
- 美 “中 가공 알래스카 명태 관세, 사례별로 판단” / 43
-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조항 기한, 혼란 유발 / 44
- 러 나훗카에 명태 공장 신설 / 45
- 러시아, 세계 5대 연육 생산국 진입 / 46
- 러 명태 연육 생산량, 예상치보다 20% 더 많아 / 47
- 세계 최대 공모선 프세볼로드 씨비르페프스? / 48
- 러, 어류 가공을 위한 육상 단지 건설 / 49
- 러 선주, 한국의 청어와 명태 수입 감소에 주목 / 49
- 한국으로의 러시아 대구 수출 증가 / 50
- 러시아와 모로코, 수산 분야 협정 체결 / 50
- 알래스카 명태 산업, 혼획 관련 비판에 진상 규명 / 51
- 대구 양식 생산량이 어획량을 따라잡을까? / 52
-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의 재건 / 52

■ 공치어업 동향

- 日 공치 TAC, 14% 감소한 9만 5,623톤 제안 / 53
- 글로벌 맥락에서의 러시아 공치 어업 / 54

■ 각국 수산 동향

- 사우스 조지아 해양 보호 구역, 보호 강화 / 55
- 전세계 ‘탈미국’ 현상, 서서히 진행 중 / 56
- 美 상원, IUU 어업 처벌법 재상정 / 57
- 美, 수산물 경쟁력 회복 위한 행정명령 발표 / 58
- 미 NGO “전자모니터링과 Wi-Fi가 선상 복지 증진” / 59
- 러, 산업 선박의 노동 안전 문제 논의 / 59
- 中, 유엔 항만국조치협정 가입 / 60
- 러시아와 오만, 어업 협력 강화 / 60
- 칠레 수산물 수출 급증 / 61
- 中 영양 목표, 수산물 성장 기회 창출 / 62
-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 간소화 위한 협의 시작 / 62



쉬어가는 난

- 밀물과 썰물 사이 - 이일향 / 63



국내 수산 정보

- 4월 오징어 국내 동향 / 64
- 4월 명태 국내 동향 / 66
-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 사업 대상 모집 / 68
- 정부, BBNJ 협정 발효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 / 68

협회,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와 정책 협약 체결

원양산업에 대한 적극적 정책지원 약속



우리 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위원회가 5월 14일 문대림 국회의원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기후변화 위기 및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식량안보 생산기반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외 연안국 및 공해에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원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정책협약 체결의 목적이다.

이번 체결식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장 문대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협회 측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협약의 정책과제로 ▽친환경 어선 건조 지원 확대 ▽해외어장 확보 및 수산 외교 다층화 ▽원양업계 경영 안정화를 위한 톤 세제 등 세금 감면제도 도입 ▽어선원 수급 안정화 방안 구축 ▽해외수산자원 개발산업 배후도시 육성에 합의하였다.

김영규 회장은 “우리 원양산업이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난제를 극복하고 식량안보 기여 및 해외 생산기반 확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고무적이다”라고 밝히며 “2027년의 원양산업 7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원양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해양수산부-원양업계 간 간담회 추진

협회 방문하여 업계 건의사항 등 청취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7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원양산업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회 업무 내용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수부에서는 홍래형 수산정책실장, 서정호 수산정책관, 강동양 원양산업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업계에서는 협회 회장단사(경양수산, 남북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정일산업, 참손푸드, 한성기업 - 이상 가나다순)가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및 양 본부장,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협회는 동 간담회 이후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 추진 및 후속조치 관

련 협조 요청 △선박직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협조 요청 △원양어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감시원 배치 완화 △기관사 고급사관(2급)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한 승무자격 개정 △원양어선 톤 세제 및 세금 감면 제도 도입 △참치 수출 관련 정책 지원 확대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예산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였다.



원양산업 재도약 위한 연구용역 업무협의회 개최

연구용역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 추진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 관련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가올 원양산업 70주년을 대비,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이번 협의회 개최 취지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연구용역 추진 예정 기관인 한국수산업류정곤 박사 등을 비롯하여, 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정일산업(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및 기획홍

보부가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자료를 통하여 연구용역 과업 개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및 과업 수행 공정표를 설명하였고, 한국수산업 측에서는 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업계 참석자들은 현재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현안에 대한 설명 및 연구용역에 대한 요청사항을 제시하였다.

협회와 연구용역진은 통세제 등 법인세 감면과 신조·합작 증대 등 업계 주요 요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관련 안내

협회 부산지부에 선상투표 안내책자 비치

우리 협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의 선상투표와 관련, 선상투표 모의시험 실시 및 선상투표 신고 등의 사안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선상투표일은 2025년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일반팩스와 전자팩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상투표용지 등의 수신 기간은 2025년 5월 25일까지로, 전자팩스 이용 선박은 선상투표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 일괄 출력 후 선장이 선거인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선상투표는 선거인이 선장에게 투표용지를 건네어 표지부분(가) 서명란에 선장과 입회인의 서명을 받고, 봉함용봉투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다음 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pdf로 스캔 후 pc에 저장하여 선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장은 투표 종료 후 선상투표 관리기록부를 선상투표 홈페이지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세한 투표 절차 내용은 선상투표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다. 선상투표 매뉴얼 안내책자는 협회 부산지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방문 수령 가능하다.

원양업계 선박·선원 관련 현안 간담회 및 협의 추진

해수부·연수원·업계와 각종 현안 해결 위하여 협의

우리 협회는 원양업계의 선박·선원 관련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업계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추진하였다.

우리 협회는 4월 9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를 방문하여 원양어선 해기사(기관사) 수급난 해소를 위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등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건의하였다. 해수부 측에서는 선원정책과 이정로 과장, 장경일 사무관, 장순길 사무관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과 소기동 회원지원부 부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4월 24일에는 협회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원양업계 선박·선원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현안 ①사설 감시원 배치, ②2급 기관사 수급 부족 등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공유, 해결방안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업계에서는 동남, 동원산업, 동원수산, 동원해사랑, 사조산업, 신라교역, 정일산업, 한성기업(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이형균 부산지부장, 소기동 회원지원부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4월 25일에는 2급 기관사 수급 부족 관련 논의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원을 방문하였다. 해당 협의회에는 해양수산연수원 박태선 교수가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 측에서는 소기동 회원지원부 부장이 참석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완화, 2급 승급 면접시험 및 온라인 교육개설 등에 대한 자문·협의를 이루어졌다.

우리 협회는 상기 회의 및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수원에 공문을 전달하여, ▽2급 기관사 취득 희망자들을 모아 '원양어선 종사자 특별 면접시험'을 시행 ▽면허취득 교육, 원양선 직무교육 등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또는 희망자가 소규모 인원일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교육을 개설하는 것 등의 내용을 건의하였다.

협회는 고급기관사(2급 이상)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해수부 방문 및 공문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할 예정이며, 감시원 배치 완화 건은 차후 보안 관계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건의할 계획이다.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해외수산자원 개발산업인 원양산업

새 생산 기반 마련과 경쟁력 키울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

우리 원양산업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산업으로서 70년 가까이 우리 국민에게 수산 단백질을 공급해 왔으며, 수산물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60년대부터 선도적으로 공해와 주요 연안국으로 진출해 수산자원개발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에 한인사회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원양산업은 해양법 발효 이후 연안국과 국제사회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정책, 환경 문제, 조업 규범 문제 등으로 해외 어장이 축소됐으며, 이는 원양업체 수와 어선 척수, 어선원 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는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기후변화 속에서 원양산업은 안정적 수산식량 확보라는 식량 안보산업 측면에서 다시 한번 평가받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안정적인 국내의 산업 공급망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전 세계 식량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수산물 소비량이 203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아시아 지역이 수산물 소비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은 약 44만㎢(영해 7만 ㎢)이다. 일본은 약 448만㎢(영해 43만 ㎢)이며, 중국은 약 88만㎢(영해 14만㎢)로 추정된다. 일본, 중국 등은 자국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조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국제수산기구에서 6만 6천 톤의 쿼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러시아, 폴란드, 키리바시, 솔로몬 등 연안국에 진출해 참치, 오징어, 명태, 꽂치 등을 47만 9천 톤 생산하였다. 해외 합작으로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가나, 세네갈, 키리바시 등에 진출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28만 8천 톤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조업권은 지속 가능한 권리로 소중한 해외 수산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평가와 해외 수산자원 조업권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산식량에 대한 새로운 통합적인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수산 식량안보 확보라는 국가 수산정책 수립 속에 원양산업은 중요한 한 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원양산업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산업으로서 다양한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위험성 분산과 글로벌 신사업 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다. 또한 원양산업은 국내 연근해 생산 부족을 대체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원양산업이 대만, 중국 등 조업국과의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해외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세제적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은 그동안 법 명칭에 맞지 않게 원양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제 원양산업이 해외 수산자원 개발 산업으로서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수산경제, 2025년 4월 21일자 게재〉



명예해양수산물관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갈치 어획량 급감 추세

- 세네갈 교민의 생계 수단과 연결된 갈치 어획량이 지속하여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의 절반 미만을 어획하였다. 세네갈 정부는 육상 생선 공장 보호

명목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진하고 너무 저조한 어획량으로 갈치 사업자는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765
	3.4~10kg	1,665
	1.8~3.4kg	1,565
	1.5~1.8kg	1,415
	1.5kg 미만	1,215
눈다랑어	10kg 초과	1,415
	3.4~10kg	1,415
	1.8~3.4kg	1,415
	1.5~1.8kg	1,265
	1.5kg 미만	1,065
가다랑어	3.4kg 초과	1,615
	1.8~3.4kg	1,565
	1.5~1.8kg	1,415
	1.5kg 미만	1,215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522	'25.4.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생물다양성 관리

- 피지, 통가, 나우루는 생물다양성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국적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해양 보호에 집중하였다. 이 워크숍은 유엔개발계획(UNDP)

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강화를 목표로 한다. 9,080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피지의 해양정책과 기후변화법에 부합하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경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평가할 것이다.

나. 디지털 인프라 강화

- 피지는 미국의 지원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평가하고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지 부총리 겸 통신부 장관은 방화벽, 위협탐지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사이버 보안에 관심이 큼을 밝혔다.

다. 지속가능 어업 문제 협의

- 태평양 공동체 27개 회원국 등 각국 어업 수장들은 지역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남획, 기후변화, 식량안보와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며 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경제발전, 환경회복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라. 해양 범죄에 첨단 장비 도입

- 피지 경찰은 첨단 수중 로봇 도구인 원격조종 수중 차량(ROV)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해양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 장비를 통하여 국제 범죄 위협을 감지하는 등 피지의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피지 주재 일본 대사는 해상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피지 경찰청장은 일본의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경찰의 해양 범죄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렸다.

마. 이민법 준수 강화

- 피지 이민부는 유효한 이민 허가 없이 거주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해 경고했고, 5월 말까지 체류자격을 정규화하지 못할 시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위법으로 고용주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였다.

바. 기술 및 직업훈련 강화

- 피지 정부는 농촌 및 해양지역의 학생, 교육자, 지역 사회인의 기술향상을 위해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이 중국의 루반위크숍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며, 선진적인 교육방법과 고품질 장비가 제공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직업교육 현대화 및 지역 기업 환경에 맞춘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

- 중국은 세계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피지주재 중국대사는 지난해 교역규모는 5억 3,4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양국은 인프라, 무역, 농업, 어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가 필요함을 알렸다.
- 이에 피지 부총리 겸 무역부 장관은 피지의 균형 잡힌 성장을 강조하며, 중국과 상호존중과 공동개발 목표라는 탄탄한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아. 필리핀 대사관 설립

- 피지와 필리핀은 1973년 12월 8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피지정부는 필리핀의 수바에 대사관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두 나라 간의 협력을 향상하고, 노동력 이동성, 농업, 안보, 기후변화, 해양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현재 필리핀은 뉴질랜드 웰링턴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피지 업무를 맡고 있으며, 피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피지대사관에서 필리핀 업무를 맡고 있다.

자. 수산 운영 센터 개소

- 피지 수산부는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피지 최초의 수산운영센터를 개소하였다. 수산부장관은 첨단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위성이미지 접근능력의 결합은 중서부 태평양과 피지 수역의 어업활동 관리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센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피지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200	로인가공용(PAFCO)

카.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75	'25.5.9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물 수출 절차 전자화

- 인도네시아는 수산물 수출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Siap Mutu' 플랫폼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정부 기관 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수출업체는 이제 품질 및 안전 인증서(SMKHP)를 전자 방식으로 빠르게 신청하고, QR코드로 인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비 인증서 발급 속도가 높아져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다랑어 쿼터 확대

- 인도네시아는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에서 다랑어 어획 쿼터를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다. 2025년에는 눈다랑어 쿼터를 2만 1,396톤으로 늘렸고, 상어 보호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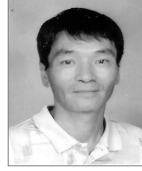
다. 중국과 협력 강화

- 중국과의 수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무역·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1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오징어와 문어가 있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70	'25.5.2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1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3~0.7톤을 어획하여 전월대비 다소 향상된 어획을 기록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2.86	'25.5.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상업 어선 지원 논의

- 뉴질랜드의 대형 트롤선의 어획물은 전체 수산물 수출량의 60% 이상을 차지, 연간 22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 8천억 원)의 수익과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
- 그러나 환경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저층 트롤어업은 해양 서식지에 최대 40% 영향을 제공하며, 비상업 어종의 혼획률이 높아 전체 어획의 15%가 폐기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도미(snapper)와 호키(hoki) 어족이 25% 감소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 트롤 조업 허용 구역을 30% 축소하는 등 규제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업체는 수산물 수출량이 20%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보조금을 연간 5천만 뉴질랜드 달러(약 420억 원)로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나. 트럼프 관세, 수산업에 과제 제공

- 미국이 뉴질랜드 수산물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뉴질랜드 수산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뉴질랜드 수산업체는 미국 외 아시아 및 유럽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강화를 통하여 관세 완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획량 감소 및 해양 생태계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노동력 부족으로 숙련된 선원 확보 난항이 수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오징어	2L	6,150
	L	5,600
	M	5,700
	2M	5,500
	S	3,25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853	'25.5.6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그림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모리셔스 현황

-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섬나라로, 가까이에 프랑스령 레위니옹이 위치한다. 1638년 네덜란드, 1710년 프랑스, 1810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1968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였다.
- 2021년 민주주의 지수를 세계 19위를 기록하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나라로 인구의 68%가 인도계, 27%가 아프리카계이다.
- 2024년 기준 명목 1인당 GDP는 1만 2,601달러로, 물가는 서울과 큰 차이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은 1971년, 북한과는 1973년에 이뤄졌다.(이상 편집자 작성)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Shell	MGO	830	'25.5.8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업계와 노동조합 간 갈등

- 마르텔 플라타를 중심으로 조업 및 가공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3대 수산 기업인 Arbutasa Pesca Austral社は 조업선 4척을 출항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공 근로자는 무기한 휴직을 권고하고 계약에 명시된 기본 혜택만 제공키로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SOIP, SOMU)은 임금 삭감 요구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 얼마 전부터 선박 보유기업은 가공을 포기하고 어획한 생선을 원어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노조의 개입과 낙후된 노동 서비스, 상승하는 가공 비용 등으로 아르헨티나 기업은 위기에 처해있어, 이제는 기업도 반발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노동정책 개혁 필요

- 사회주의적 페로니즘식 노동시스템이 과도한 노조 개입을 초래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고물가와 환율 문제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하여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기업은 임금 삭감 및 새로운 근로 조건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나, 생산성 하락과 조업 중단이 지속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 기업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 지출의 60%가 인건비로 수익성이 -15%~-21% 수준으로 인건비 지출을 35%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정부-기업-노동조합 간의 협력이 산업 회복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 오징어 어획 현황

- 2025년 4월 15일까지 오징어 어획량은 총 12만 2,954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75척의 채낚기 조업선이 대부분을 어획하였고 일일 평균 21톤을 어획하였다. 한편, 트롤선은 1만 6,352톤을 어획하였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320	'25.5.9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Our Ocean 참여

- Emelia Arthur 수산부 장관은 4월 28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에 대해 협의하였다. 가나는 미국의 지원 중단에 따른 해양 보호 구역 설립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과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서아프리카의 해양 지속 가능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나. 블루이코노미 위원회 개최

- Emelia Arthur 수산부 장관은 가나의 해양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블루 이코노미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불법 어업 대응, 해양 생태계 보호, 생태 관광 투자 장려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통하여 가나의 어업 거버넌스 개선과 해양자원 보존 그리고 가나의 GDP 기여도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불법 조업선 면허 정지 처리

- 가나는 불법 전재, 어류 투기, 치어 어획 등 불법어업을 한 4척의 트롤선에 12개월간의 면허 정지를 부과하였다.
- 정부는 불법어업은 해양생태계와 연안 어업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으로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면허 영구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경고하였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250
	10kg 이하	1,800
가다랑어	3.4kg 초과	1,500
	1.8~3.4kg	1,450
	1.5~1.8kg	1,300
	1.5kg 미만	1,150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769	'25.5.8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790	'25.4.30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을 통한 산업 발전 모색

- PNG 수산청의 숙원 사업인 자국 참치 조업선 직접 운영을 위하여 Fisheries Capital Ltd.社를 설립하였다. 동 사는 PNG의 국부 창출과 1차 산업 중심 경제를 2, 3차 산업으로 확장하며 고용증대와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나 100% 국가 투자로 설립된 동 사는 그간 활동 계획이 부재하여 정체 상태였으나 최근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 PNG에서 생산된 참치 대부분은 EU로 수출되며, MSC 인증을 통하여 제로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번에 설립된 Fisheries Capital Ltd.社의 주 도하에 EU와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마케팅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꽂치조림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꽂치 3마리, 대파 1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식용유 1큰술
- 양념: 다진마늘 2큰술, 대파 1대, 고추가루 2큰술, 간장 1/2컵, 맛술 1/2컵, 참기름 1작은술, 후추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꽂치를 손질 후 4등분 한다.
- ② 대파는 반으로 가른 후 송송 썰고,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 ③ 냄비에 기름을 두른 후 양념재료를 넣고 끓인다.
- ④ ③의 양념에 손질한 ①의 꽂치를 넣어 약불에 15분간 졸인다.
- ⑤ 4의 졸인 꽂치를 그릇에 담고 ②의 썬 대파와 청고추, 홍고추를 올려 완성한다.



5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599달러

5월 14일 기준 617달러

5월 14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72달러, WTI 가격은 63.15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6.09달러를 기록하였다.

5월 14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17달러로 4월 14일(600달러) 가격 대비 약 3% 상승하였다.

5월 평균(4.1~4.14) 가격은 599달러로 전월 평균 가격인 616달러 대비 약 3% 하락하였다. 전년 5월 평균보다 18% 하락하였고, 전전년 5월과 비교하면 12%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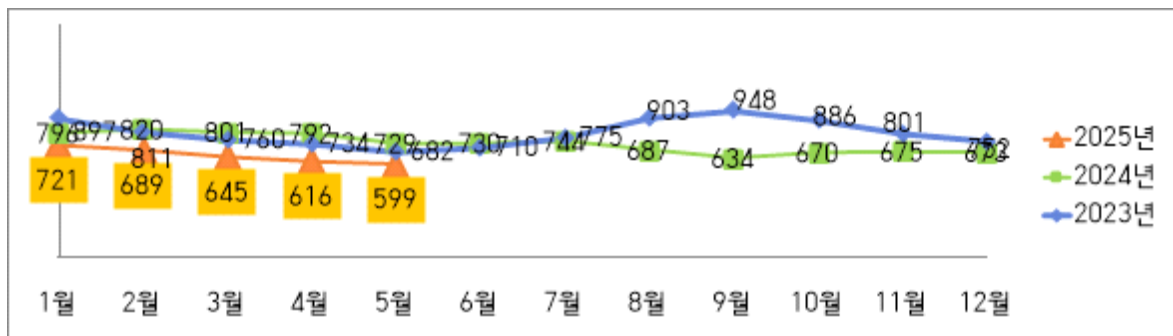
2025년 평균(1.2~5.14) 가격은 661달러로 전년(1.2~12.31) 평균 대비 9%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17%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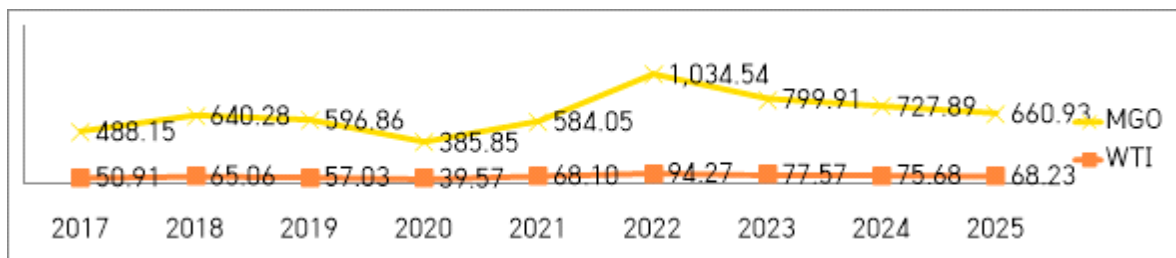
5월 초 국제 유가는 OPEC+의 증산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급락하였으나, 이후 미국 주요 셰일 기업의 생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는 5월 중순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5월부터 중동 순방 일정에 들어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장기적 평화를 위하여 이란과 진지하게 협상 중이며, 이란과의 핵 합의에 근접”하였다고 밝혔다. CNBC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될 경우, 원유 수출량이 하루 최대 100만 배럴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WTO, 관세 불확실성으로 국제 무역 위축 예상

中 참치 기업, 자국 시장 확대 모색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관세 급등 및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 무역이 혼란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WTO는 2025년 세계 상품 거래량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미국 정부는 해외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각국에서 “친미국적인” 협상을 요청하면서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발효하였다.

WTO는 미국 정부의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중국 참치 기업들은 자국 매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WTO 사무국은 최신 ‘국제 무역 전망 및 통계’를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악화할 경우, 2025년 무역량은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미·중 간 대립을 포함하여, 현재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최근의 관세 긴장 완화로 인하여 국제 무역에 대한 압박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국제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전 세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국가는 더욱 위험하다.”라고 말하였다.

사무총장은 WTO 회원국들이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 결정을 간소화하고,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에 더 잘 부합하도록 협정을 조정할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WTO에 대한 분담금을 중단하였다는 소식이 다수 소식통으로부터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국제기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에도 W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WTO는 현재의 정책 환경하에서 북미 지역의 2025년 수출은 12.6%, 수입은 9.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미 지역의 이러한 감소로 인하여 2025년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이 1.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부활은 수출 지향적인 최빈개도국(LDC)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TO는 이러한 국가들이 소수의 제품에 무역이 집중되어 있고, 어려움에 대처할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 경제 충격에 특히 민감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은 상당 규모의 무역 전환을 촉발하여 제3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는 유예되었지만,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145%에 달한다. 무역 전환으로 인하여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국 상품 수출은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참치 가공업체들은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타국 시장에 대한 수



출 증대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수입 관세는 중국과 미국 간 참치 자숙 로인 등 참치 제품 무역을 거의 소멸시켰다.

〈중국, 자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나?〉

중국 최대의 참치 통조림, 자숙 로인, 수산물 가공 회사인 닝보투데이푸드(Ningbo Today Food)의 장닝 영업부장은 중국 신문 Yicai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운송 비용 상승,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수출 사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장닝 부장은 회사 매출의 70%가 수출이며, 주로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향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는 중국 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발생한다. 닝보투데이푸드는 더 많은 지역 매장을 확보하고 점차 국내 판매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국 슈퍼마켓 체인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닝 부장은 전환 후 국내 사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17일자

美 규제완화명령, 태도국 참치 조약에 여파 우려 아메리칸사모아 등 우려 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9일 “합법적인 거버넌스 보장 및 대통령의 ‘정부효율성부처’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O) 14219호에 서명하였다. 이 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의 장이 법과 행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0일 내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정부효율성부처(DOGE) 및 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참치 어업과 남태평양참치 조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서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이하, WPFMC)는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하, NOAA)은 파파하노모쿠아키아 국립해양보호구역의 최종 규칙과 규정을 검토하여 행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제 완화명령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더 많은 규제가 검토되어 위협에 처하게 되면, WPFMC는 인접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원조의 보류 또는 중단으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

다. 남태평양참치조약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매년 6,000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참치 어선들이 해당 국가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WPFMC는 3월 27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지원 중단은 어업 협정을 위태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아메리칸사모아 경제를 지탱하는 미국 어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WPFMC는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번 행정명령이 기존 국제 어업 조약 및 협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WPFMC는 태평양 도서국의 어업 관리 및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의 해결을 미국 상무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상무부, NOAA, 그리고 관리예산처에 지역 어업 관리 위원회 예산을 즉각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증액은 이 지역의 해양 환경과 어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31일자



중국, 미국에 보복 관세

태국, 베트남 등 미국과 협상 계획 수립

중국 재무부는 4월 11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렸다. 해당 조치는 4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국 대상 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참치 제품 수입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90일간의 유예(4월 9일 발표)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가 기준치인 10%로 인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이러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을 당시, 10%가 이미 전 세계 상품에 부과된 관세에 추가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추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성명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역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는 10%에서 시작하며, 그 후 곧 열거된 교역국에 대한 추가 종가세(출고 가격 또는 수입 물건 등 과세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율을 측정하는 관세)가 인상될 것이다 (후략)”

“상호 관세”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국산과 베트남산 참치 제품에 각각 36%와 46%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 유예로, 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 구매자가 수입하는 참치 통조림에의 기존 관세는 12.5%였으나, 이제 2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을 제외한 참치 생산국들은 미국 행정부와 협상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 이상이 미국 대표단에 연락해 “상호 관세”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에 앞서 90일간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태국 재무부는 9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4단계 협상 메커니즘과 협상 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단계 협상은 “태국이 미국을 더 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거시적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틀은 5개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1. 미국과 태국은 가공식품 사업 분야에서 국제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태국으로의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린다.
3. 태국의 농업 부문을 국제 시장에 개방한다.
4. 태국 수출품에 대한 감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시행한다.
5. 무역 정책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국 측과 대화를 위한 사전 협의팀을 구성하여 태국의 미국 투자를 장려한다. 이 협의팀은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승인한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참치 수출에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면 태국 참치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태국의 생산업체는 주로 중서부태평양 선단에서 원어를 매입한다. 미국은 태국의 최대 시장으로, 2024년 태국은 통조림 7만 6,789톤과 자숙 로인 1만 4,655톤을 수출하였다.

베트남과 미국은 양자 무역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기술 협상팀이 4월 11일 구성되어 미국 대표단과 즉각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도되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 악화로 인하여, 중국 가공업체의 미국 통조림 수출 등의 참치 사업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11일자



IOTC, 가다랑어 쿼터 최초 도입

황다랑어 쿼터, 증가 없어

4월 중순경 종료된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29차 연례회의에서 가다랑어 어획 한도가 채택되었다. 가다랑어에 어획 한도를 도입한 것은 모든 참치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를 통틀어 최초이다.

IOTC 29차 연례회의는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레위니옹에서 진행되었다.

〈가다랑어 관리 조치 & 자원 쿼터〉

프랑스 선망 단체인 'Orthongel'은 IOTC 과학 자문에 따라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가 쿼터 제도에 따라 어획될 예정이며, 이것이 자원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다.

가다랑어 TAC는 2021년 채택된 IOTC의 가다랑어 관리 조치의 일부이다. 선단별로 쿼터가 도입될 예정이나, 정확한 톤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3년 과학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간 62만 8,606톤의 TAC를 자문하였다.

새 눈다랑어 쿼터는 모든 선단을 대상으로 15% 증가하였다. Orthongel은 “이번 조치는 우리 Orthongel과 같이 최대한 빠른 자원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선단에 있어 단비와 같다”라고 밝혔다. 2024년 말, IOTC 과학 자문단은 2022년 자원 평가를 근거로 눈다랑어가 남획 상태라고 밝혔다.

Orthongel은 과학 자문단이 황다랑어가 남획 상태가 아니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IOTC가 황다랑어 쿼터를 늘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하였다. Orthongel은 황다랑어 쿼터 문제가

2026년 5월 몰디브에서 개최 예정인 다음 연례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dFAD 조치〉

IOTC는 비(非) 생분해성 FAD의 즉각적인 전면 금지를 포함하여 dFAD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채택하였다. dFAD의 수는 2026년에 300개에서 250개로, 2028년에는 225개로 감축될 예정이다. 이는 모든 참치 RFMO의 한도를 통틀어 최저치로, 2030년까지 완전 생분해성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된 것이다.

IOTC는 또한 dFAD 배치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dFAD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어선 및 선단이 배치하는 모든 dFAD에 대한 공식 추적 데이터베이스로, IOTC가 유지하고 관리한다.

〈해상 전재 규제 등 의견 엇갈려〉

유럽 수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Europeche는 IOTC의 가다랑어와 눈다랑어 관리 노력을 호평하였다. 그러나 Europeche는 인도네시아의 해상 전재 시 오퍼서 배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IOTC의 결정이 모니터링에 큰 허점을 만들 것이며, IUU 어업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uropeche는 이번 회의의 몇몇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도 지적하였다. 이들이 지적한 사안에는 공해상 승선 및 검사,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자망 어업 모니터링 개선 등이 있다. Europeche는 “일부 국가들의 소규모 그룹에서 지속적인 반대를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과학위원회가 일부 소규모 참치 및 새치의 좋지 못한 자원 상태에 대하여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IOTC가 해당 자원에 대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노동 관련 표준, 진전 필요〉

Europeche는 EU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선원 노동 표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참치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의 국제단체인 글로벌참치연맹(이하, GTA)은 IOTC가 ILO188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노동 기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일부 진전을 이룬 것에 만족을 표하였다. GTA는 또한 IOTC가 사무국에 현행 국제노동기준을 벤치마킹하도록 지시한 것도 호평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는 2026년 IOTC 작업반 업무 배정에서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GTA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논평하였다. GTA

는 가다랑어 어획한도 협상으로 인하여 타 의제에 대한 논의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황다랑어 자원량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타 주요 황다랑어 관리 의제에 대한 진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퓨 자선재단, IUU 규제 조치 미흡을 지적〉

퓨 자선재단은 눈다랑어와 가다랑어 관리 조치에 대한 지침의 시행을 호평하였으나, IUU 어업 대책에 대한 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퓨 자선재단은 “2026년에는 공해상 승선 및 검사 규정, 어획량 데이터 및 선박 활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정보 공유 등 해상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더 많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성명을 통하여 말하였다.

퓨 자선재단은 청상아리 관리 개선, 상어 지느러미 채취 규제 강화 등 IOTC가 상어 보존과 관련하여 보여준 진전에 대하여 호평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22일자

IOTC, 눈다랑어 TAC 15% 증량 승인

가다랑어 어획량 한도 도입

일본 수산청은 4월 21일, IOTC가 2026~2028년 눈다랑어의 TAC 한도를 현행 8만 583톤에서 9만 2,670톤으로 증가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증량은 IOTC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관리 절차하에서 15%의 TAC 증가가 지속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절차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TAC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예외를 최소화하고 보다 역동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IOTC는 황다랑어에 대한 국가별 어획 한도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자원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초기 평가에서는 황다랑어 남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2024년 12월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자원 평가에서는 더 이상 남획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최대 생산량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은 수년간 남획되어 왔고, 쿼터 제한 조치로 인해 최근 IOTC 회원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던 만큼 이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22일자



IOTC, 각국 선단에 가다랑어 TAC 할당

눈다랑어 어획 한도, 상어 관련 조치 外

4월 17일 종료된 제29차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연례회의에서는 가다랑어와 눈다랑어 쿼터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IOTC 연례회의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령 레위니옹에서 개최되었다. IOTC는 2021년 채택한 IOTC 가다랑어 관리 절차의 하나로, 가다랑어 쿼터를 설정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2025년과 2026년 가다랑어 TAC는 62만 8,606톤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IOTC는 가다랑어 어획량 한도를 설정한 최초의 RFMO가 되었다.

회원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범주 A에는 이하의 <표 A>에 나열된 CPC가 포함된다. IOTC는 범주 B에 속하는 국가의 개요를 제공하지 않았다.

IOTC는 2025년과 2026년에 선단의 어획량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향후 몇 년 안에 어획 한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IOTC)는 이번 결의안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2029년 두 번째 관리 기간에 앞서 개정해야 한다.”

<눈다랑어 어획량 한도>

눈다랑어 TAC는 2026년, 2027년, 2028년에 9만 2,670톤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현재 한도보다 15%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결정은 ‘IOTC 관할 구역 내 눈다랑어 관리 절차에 관한 결의안 22/03’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당 결의안은 IOTC에 처음으로 눈다랑어 관리 절차(MP)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RFMO는 연간 어획량 한도를 이하의 <표 B>와 같이 공개하였다.

<상어 관련 조치>

IOTC 회의는 참치 어업에서 자주 혼획되는 어종인 상어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결정하였다. 여러 NGO는 수년간 상어 보호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IOTC 회원국은 자국 국적 선박이 장완홍상어(oceanic whitetip shark), 환도상어(thresher shark), 고래상어의 사체 일부 또는 전체를 선내에 적재하거나, 전채하거나, 양륙 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은 연승어선 등의 선박이 와이어 리더와 상어 라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5년에 실시될 청상아리 자원 평가에 대한 검토 및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26년에는 청상아리에 대한 더욱 엄격한 조치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원국은 자국 선박이 어구를 장치하기 전에 고래상어를 발견한 경우, 의도를 갖고 선망을 투망해서는 안된다.



〈기타 논의된 주제〉

IOTC는 전장 24m가 넘는 모든 선박에 위성 기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하, VMS)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할 수역에서 더욱 엄격한 VMS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OTC는 회원국이 IUU 어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항만국 조치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항만 활동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IOTC 문서에는 “각 회원국은 매 보고 연

도 동안 자국 항구에서 양륙 또는 전채된 어획물의 최소 5%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각 회원국은 자국 국적의 선박이 이 결의안에 따라 수행되는 검사에 대하여 항만국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29일자

CPC	연간 어획한도 (톤)
인도네시아	138,000
세이셸	76,725
몰디브	121,000
EU	125,000
스리랑카	38,000
이란	68,000
인도	25,000
모리셔스	13,908
한국	10,000
합계	615,633

〈표 A: 국가별 연간 가다랑어 어획한도〉

CPC	연간 어획한도 (톤)
인도네시아	21.396
세이셸	13,664
EU	19,562
스리랑카	5,488
일본	4,237
중국	4,353
이란	2,421
모리셔스	2,482

〈표 B: 국가별 연간 눈다랑어 어획한도〉



NGO, IOTC 가다랑어·눈다랑어 쿼터 도입 호평

일부 미흡한 점 지적해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는 최근 마무리된 29차 연례회의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NGO와 참치업계 이해관계자들은 IOTC의 결정에 호평을 보냈으나, 일부 의제의 합의 실패에 대해서는 비판하였다.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이하, ISSF)은 가다랑어, 눈다랑어, 상어 관련 조치에 대하여 호평하였다.

IOTC는 가다랑어 관리조치에 따라, 가다랑어를 어획하는 선단에 대한 쿼터 배분에 합의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어획 한도는 현재 인도양에서 남획 상태인 눈다랑어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한도는 모든 선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ISSF는 “만일 모든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이 어업 기회를 최대한로 활용한다면, 새 조치는 효과적인 어업 통제 및 관리조치의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ISSF의 성명에 따르면, IOTC는 수년간 남획 상태였다가 2024년 12월 자원 상태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난 황다랑어 자원 상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조사를 과학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 결정은 황다랑어 자원의 회복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내년에 효과적인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ISSF는 밝혔다.

IOTC 연례회의에 앞서 제출된 ISSF 입장문은 옹서버 커버리지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ISSF는 성명

에서 “새로 채택된 EM 표준, 선박 차원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옹서버 커버리지(인간과 전자 모두)의 향상이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격차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심각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ISSF는 IOTC가 전채 및 선박 모니터링에 대해 “작지만 긍정적인 진일보”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ISSF는 IOTC 관할 운반선이 IOTC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을 기국으로 삼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ISSF는 IOTC가 채택한 혼획 절감 및 상어 보존 관련 개선에 대하여 환영 의사를 표하였다.

〈황다랑어 자원 평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해양보호단체 ‘블루마린재단’은 황다랑어 자원 상태가 건강하다는 평가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였고, 일부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IOTC 회의에서 이러한 자원 평가 결과가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블루마린재단은 “오랜 기간 남획이 계속된 황다랑어 자원이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점으로 인하여 자원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및 투명성, 독립성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하며, 평가 과정은 독립적으로 검토되고 그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23일자



중서부태평양 3월 어획량, 노력량 모두 증가 3월 전재량 회복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수역과 공해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14% 증가한 3,934일이다. PNA 수역에서의 선박조업일수제도(이하, VDS) 사용일수는 3,558일로, 2월 대비 12% 증가하였다.

선단은 중서부태평양의 모든 수역에서 조업하였고, 주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수역에 집중되었다. PNG에서의 VDS 사용일수는 1,102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였다. 키리바시 수역에서의 VDS 사용일수는 984일이었었다. 미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전체의 12%(2월에는 전체의 3%)로, 2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공해와 마셜제도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 또한 증가하였다. 솔로몬제도와 투발루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감소하였다.

3월 중서부태평양의 전체 어획량은 10만 9,685톤으로, 2월 어획량(9만 5,794톤) 대비 15% 증가하였다. 2024년 3월 어획량과 비교하면 16%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2월에 적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3월에 증가하였다. 3월 가다랑어 어획량은 7만 7,484톤으로, 전월 대비 17% 증가하였다. 대형 황다랑어와 대형 눈다랑어(9kg 이상) 어획량은 각각 2만 1,237톤과 4,092톤으로, 각각 26%, 68% 증가하였다.

키리바시와 PNG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각각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나우루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전체의 15%를 차지하였다. 미크로네시아 수역과 솔로몬제도 수역에서의 어획량 비중은 각각 전체의 10%였으며, 마셜제도 수역에서는 8%였다. 팔라우에서는 어획량 보고가 없었고, 공해와 투발루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공해 어획량은 평균적으로 전체

어획량의 7% 정도이지만, 3월에는 3%에 그쳤다.

일평균 어획량이 가장 높은 곳은 나우루와 마셜 제도로 각각 44톤과 42톤이었다. 솔로몬제도(36톤), 키리바시(23톤), 미크로네시아(23톤)가 뒤를 이었다. 토켈라우 수역에서는 일평균 11톤을 기록하였으나, 2월에는 이 지역에서 어획량이 전혀 없었다. 파푸아뉴기니와 투발루의 일평균 어획량은 각각 30톤과 17톤으로 감소하였다. 공해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2월에 비해 65%나 감소한 9톤에 그쳤다. 이는 조업 활동이 중서부태평양 중부~서부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3월에는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이 회복되어 평균 20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월 대비 2% 증가한 수치이다.

대형 눈다랑어의 3월 일일 평균 어획량은 1톤으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형 황다랑어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5톤이었다. 소형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모두 감소하였다.

3월 PNA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6만 8,666톤으로 전월 대비 28% 증가하였다. 전재 건수는 총 102건으로, 2월의 92건에 비하여 11% 증가하였다.

모든 주요 PNA 항구에서의 전재량이 3월에 증가하였다. 마당, 라바울, 라에 등 PNG 항구는 이번 EEZ에서 많은 선망 어획량 및 어업 노력량에 힘입어 많은 전재량을 기록하였다. PNG에서의 전재량은 총 3만 2,960톤으로, 전체 전재량의 48%에 해당한다.

키리바시와 미크로네시아에서의 전재량은 각각 1만 5,106톤과 1만 986톤으로 보고되었다. 마셜 제도에서는 8,927톤, 솔로몬제도에서는 686톤이 전재되었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29일자, 30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3월 수입량, 전년도 대비 47% 증가 3월 들어 다시 입고 지연 조짐 있어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3월 다랑어류의 3월 수입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259톤(전년도 동월 대비 47% 감소), 수입액 4억 9,200만 엔(30%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6,102톤(22% 증가), 수입액 140억 6,300만 엔(2% 감소), 가공품 수입량 3,731톤(2% 감소), 수입액 31억 1,700만 엔(1% 증가)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3월 수입량은 5,831톤으로, 2개월 연속으로 5,000톤을 넘어섰다. 전년도 3월과 비교하면 47%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 상사의 적극적인 판매도 있어 초저온 냉동고의 빈 공간을 기다리는 운반선은 작년보다도 적고, 통관이 비교적 원활하여 순조롭게 입고가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냉동고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3월에 들어서자 입고의 지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향후 지중해 연안국에서 반입되는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 외에 일본의 참치 독향선 입항이 5~6월에 집중될 전망이다. 초저온 냉동고 부족은 올해에도 과제이며, 장기화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망 전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고 공간 부족이 심해지면 단가를 올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최근의 단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냉동 눈다랑어의 평균 수입 단가는 kg당 713엔(11% 하락)으로, 2월의 kg당 732엔 대비 19엔 하락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700엔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2월에 정점을 기록한 후 8월까지 계속

해서 하락하였다.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만 선단의 척수 감소로 인하여, 재고를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작년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향후의 시세에 대하여 “다소의 부침은 있어도, 흥보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지만, 냉동고 공간 문제 및 소비 동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참다랑어 냉동 필렛의 수입량은, 작년 11월에 시작된 시전 전체 수입량 누계가 1만 3,243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 다만 3월 월별 수입량만을 따지면 1,050톤(54% 감소)으로 기세가 떨어졌다. 하지만 4~5월에 입하량 최고점을 기록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난해에는 8월까지 월 1,000톤 이상의 반입량이 이어졌으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물은 전년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지난해 같은 달 207톤을 기록한 한국산 수입이 5톤에 그쳤고, 뉴질랜드와 호주산 남방참다랑어 수입이 끊긴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남방참다랑어 수입량은 인도네시아산 3톤에 그쳤다. 뉴질랜드산은 현지의 어획량 부족 및 장기간 계속되는 엔저가 영향을 주면서 일본 수출용의 할당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멕시코산 양식 참다랑어는 전년 동월의 3.9배인 155톤으로, 2월의 수입량보다 146톤이나 증가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5월 8일자



日 2025년 3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91톤 수입

〈 2025년 3월 일본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5년 1월	2025년 2월	2025년 3월
날개다랑어	한국	43	87	119
	대만	127	38	513
	바누아투	-	11	521
	기타	287	57	378
	소계	458	194	1,531
황다랑어	한국	131	657	667
	중국	259	420	370
	대만	767	1,074	1,481
	필리핀	-	-	-
	인도네시아	-	-	-
	미국	-	-	-
	바누아투	9	128	24
	피지	-	-	-
	카라바시	-	-	-
	마셜제도	-	-	-
	기타	1,128	674	1,484
	소계	2,296	2,953	4,027
눈다랑어	한국	116	131	91
	중국	671	750	845
	대만	1,502	3,146	3,164
	필리핀	-	-	-
	인도네시아	-	-	-
	세이셸	1,253	632	1,339
	바누아투	71	432	118
	기타	138	234	274
	소계	3,750	9,075	5,831
남방참다랑어	한국	-	-	-
	대만	122	155	332
	호주	-	-	-
	소계	122	155	332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5월 8일자



日, 인도양 참치연승 신조선 출항

국가 지원사업 활용하여 건조



일본 스즈코어업이 대선 건조한 원양 참치 연승어선 '제3묘진마루' 호(497톤)가 지난 4월 6일 미야기현 게센누마항에서 인도양을 목적지로 출항하였다.

선대(先代) 제3묘진마루호는 1990년 건조되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게센누마항에서 쓰나미 피해를 입어 육지에 좌초되었으나, 설비선에 의하여 바다로 돌아와 대규모 수선을 거쳐 같은 해 8월에 부활, 조업을 재개시킨 이후 13년간 조업을 계속하였다.

해당 선박의 이름을 이어받은 신생 '제3묘진마루' 호는 일본의 수산업 경쟁력강화 어선도입 긴급지원사업(이하, 어선임대사업)을 활용해 지난해 3월 게센누마만의 조선소에서 건조 작업을 시작하였다. 전장 59.4m, 폭 9.2m이며, 선대 선박 규모(423톤)에서 74톤 대형화한 497톤으로 건조되었다. 건조비는 약 11억 엔이다.

이 배는 신형 키 방식인 '게이트 러더 시스템'(GATE RUDDER® SYSTEM)을 채용하였다. 어선이 이 방식을 채용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이 시스

템은 방향타를 배치하는 위치와 형상을 바꾸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2,500톤 내항선 실증시험 기준으로 연료 소비량이 약 14% 절감되었다고 제작사 측은 밝혔다.

선형은 '바둑 플로우(バトックフロー)형'을 채용하였다. 해당 형태는 선미를 유선형으로 하여 추진 효율을 높인 선형으로, 게이트 러더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구상선수(球狀船首)' 형태의 선수는 조선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흡수와 관계없이 저항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모든 환경하에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거듭한 뒤 연료 탱크 용량을 이전 선박 대비 65m³ 넓혔다. 내지에서의 연료 적재량을 늘림으로써, 가격이 높아지는 외지나 해상에서의 보급량을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연료 비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작업 갑판에는 지붕 역할을 하는 '가리개(awning)'를 넓게 만들었다. 어장인 남인도양은 고위도로 갈수록 바다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높은 파도가 빈번한 수역에서 선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주 환경도 대폭 개선되었다. 개인실은 11실로, 이전 선박의 4실에서 현격히 증가하였다. 외국인 선원의 2인실, 4인실도 1인당 공간을 넓혔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4월 12일자



美 달러 약세, EU 참치 수입업체에 호재

태국 가공업체, 달러 약세로 인하여 타격

미국 달러는 4월 23일경 다소 상승하였으나, 21일에는 2021년 말 이후 유로화 대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연초부터 유로화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가치를 보였던 달러화는 3월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어 4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유럽 참치 수입업체에 있어서 이러한 추세는 유로화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약 10%의 수입 비용이 하락한 셈이기 때문에 큰 호재이다.

1월 이후 약세를 보였던 미국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4월 들어 더욱 하락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달러에 추가 압력을 가하는 파월 의장을 몰아내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력을 가해 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4월 중순경,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투자 회사 에버코어 ISI의 크리스나 구하 부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몰아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조차 우려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경제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가 다소 하락하였다. 장기 채권 수익률에 대한 상승 압력과 달러 약세

가 동시에 나타나는 보기 드문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자본을 철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하였다.

4월 21일, 1달러의 유로 기준 가치는 올해 최저치인 0.868유로에 그쳤다. 4월 초에는 달러 가치가 0.926유로로 훨씬 높았다.

EU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등은 에콰도르, 파푸아 뉴기니, 베트남, 필리핀 등 EU의 주요 공급국에서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면서 달러로 대금을 지불한다. 유로화 강세로 인하여 이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참치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 EU는 47만 8,249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였다. 이 중 12만 1,495톤은 에콰도르산이다.

이러한 상황은 스페인 등 유럽 가공업체 및 아프리카 가공업체가 에콰도르를 상대로 더욱 어려운 경쟁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태국 가공업체들도 미국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은 원자재 비용을 달러로 지불하고, 최종 제품 가격 또한 달러로 수령하지만, 현지 인건비와 운영 비용은 태국 바트로 지불한다. 참치 통조림 수출에 대한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초에 1달러는 34.85 태국 바트의 가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33.40 태국 바트에 그쳤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2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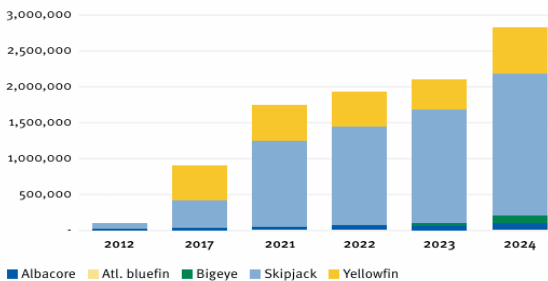


MSC 인증 참치 매출, 24/25년도 대폭 성장

매출 약 24% 성장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가 세계 참치의 날인 5월 2일에 '2025년도 참치 연보'를 발간하였다. 해당 연보에 따르면, 2024/25년도에 MSC 인증 참치의 매출은 24% 성장하였다. 해당 데이터에는 통조림, 간편식, 냉동, 애완동물 식품, 매대에서 판매되는 신선 참치 제품 등의 매출이 모두 포함되었다.

Certified tuna volumes by year, metric tonnes



〈MSC 참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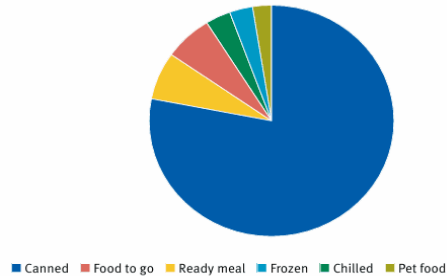
MSC 인증 참치의 물량은 2012년에 50만 톤이었다. 당시에 최다 인증 어종은 가다랑어였고, 눈다랑어가 그 다음이었다. 황다랑어 인증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가다랑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7년 이후로 인증 참치의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3백만 톤을 기록하였다. MSC 인증 가다랑어는 2024년에도 최다 어종 지위를 지켰고, 황다랑어가 그다음이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MSC 참치 제품은 통조림류였다. 그다음은 간편식, 테이크아웃(샌드위치, 샐러드, 래핑 제품) 후, 냉동, 냉장, 애완동물 식품 순이었다. MSC는 순수 참치 외에 제품 전체 중량을 계산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2024/25년도에도 미국의 뒤를 이어 지속가능 참치 부문의 세계 2위 시장 자리를 지켰다. 독일

시장에서의 MSC 참치 매출량은 6만 3,984톤을 기록하였다. 영국과 아일랜드 또한 인증 통조림 제품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캐나다에서도 MSC 인증 참치 매출 규모가 무려 582%나 증가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통조림 제품이다.

MSC labelled tuna by product type, 2024/2025



〈신규 인증 어업〉

2024/25년도에도 다수의 참치 어업이 새롭게 MSC 인증을 받았다. 신규 인증 어업에는 일본 선망 어업 중에서 최초로 MSC 인증을 받은 교와-메이호, 호주 남방참다랑어 어업, 그리고 서부아프리카에서 최초로 MSC 인증 표준을 충족한 세네갈 대서양 참치 어업 등이 있다.

MSC 연보에 따르면 현재 MSC 인증 어업에서 어획되는 참치의 양은 연간 282만 톤으로, 전 세계 자연산 참치 어획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MSC의 어종전략 최고 책임자인 로라 로드리게스는 MSC 참치 매출이 최근 수년간 성장세이며 성장 둔화의 조짐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소매업체와 소비자의 지속가능 제품 수요 충족을 위하여, 전 세계 참치 어업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는 수산 분야에서도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6일자



EU 자숙 로인 수출, 2024년에 급성장

5년 만의 최대 수출량 기록

EU 국가들의 자숙 로인 수출량은 2024년에 지난 5년을 통틀어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EU의 최대 자숙 로인 수출국 지위를 지킨 스페인은 올해 대부분의 수출 시장에 더 높은 평균 단가로 로인을 공급하였다.

EU의 2024년 자숙 로인 수출량은 2만 4,931톤이며, 수출액은 톤당 평균 5,892유로이다. 수출량의 대부분은 가다랑어이며, 황다랑어가 그다음이었으며, 기타 다랑어류가 그 뒤를 이었다. 로인 수출량과 평균 단가 모두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은 2024년 동안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1만 1,853톤을 수출하였고, 수출 단가는 톤당 8,559유로를 기록하였다. 포르투갈의 수출량은 4,185톤 증가한 9,228톤으로, 전년도 대비 83%나 증가하였다. 다만 포르투갈산의 단가는 18% 하락한 톤당 2,002유로로, 수출 물량의 상당수가 저렴한 가다랑어 제품임을 시사한다.

EU 내 타 시장으로의 허브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의 수출량은 74% 감소하였다. 네덜란드산의 단가는 톤당 1만 3,168유로라는 이례적인 고가로, 전년도

대비 무려 70% 상승한 수치이다. 높은 가격은 이 물량의 상당수가 MSC 인증을 받은 대낱시 어획 제품으로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같은 EU 국가로의 수출은 27%(5,047톤) 증가하였고, 평균 가격은 톤당 5,893유로로 8% 상승하였다. 스페인 통조림 업체들은 로인 제품의 최대 구매자였다. 스페인의 2024년 EU산 로인 제품 수입량은 9,817톤으로 전년도 대비 4,098톤이나 증가하였다. 가격은 톤당 2,238유로로, 물량의 상당수가 가다랑어 로인 제품임을 시사한다.

포르투갈의 EU산 로인 수입량은 지난 수년간 증가하였으나, 올해에는 5% 감소하였다. 주로 황다랑어를 수입하는 이탈리아의 수입량은 15% 증가하였고, 가격은 톤당 1만 3,168유로로 73% 상승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2024년 수입량은 각각 1,152톤, 644톤을 기록하였다.

EU 외부로의 수출은 18% 감소한 1,018톤을 기록하였다. 이 중 409톤은 알바니아로 향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28일자

Spanish Canners Massively Increased Intake

EU: Export Of Pre-Cooked Tuna Loins Full Year

Divided Into Major Destinations, CFR Value Per 1 M/T

	2022		2023		2024		Change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INTRA EXPORT	19,435	5,506 €	18,866	5,461 €	23,913	5,893 €	27%	8%
Spain	7,191	4,261 €	5,719	2,959 €	9,817	2,238 €	72%	-24%
Portugal	3,432	5,561 €	6,428	5,621 €	6,085	5,421 €	-5%	-4%
Italy	2,684	7,980 €	3,416	7,620 €	3,945	13,168 €	15%	73%
France	3,650	5,055 €	885	6,629 €	1,152	8,634 €	30%	30%
Germany	328	10,021 €	761	7,806 €	644	9,227 €	-15%	18%
Others	2,149	6,575 €	1,657	7,318 €	2,270	7,987 €	37%	9%
EXTRA EXPORT	1,044	4,837 €	1,235	5,402 €	1,018	5,855 €	-18%	8%
Albania	525	2,166 €	419	1,818 €	409	1,722 €	-2%	-5%
Others	519	7,541 €	816	7,242 €	609	8,631 €	-25%	19%
Grand Total	20,479	5,472 €	20,102	5,457 €	24,931	5,892 €	24%	8%

Source: Eurostat data

Powered By Atuna Analyst



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 NOAA 업무 진행 위험

NOAA 예산 삭감 및 추가 정리해고 예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대기청(이하, NOAA)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NOAA의 예산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양자원 및 보존 감독을 담당하는 NOAA 수산청은 의회가 승인하면 완전히 별개의 부처로 이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4월 중순경에 이미 수많은 NOAA 직원이 해고당한 상황이며,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조만간 추가로 해고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 NPR,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2026년 NOAA의 예산안 초안을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안에 따라 예산은 전체의 25% 이상 삭감된 44억 5,000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특히 NOAA의 연구 운영 및 어업 서비스 예산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NOAA의 현재 예산은 약 61억 달러이다.

〈NOAA가 받을 영향〉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NOAA는 참치 및 기타 어업 감독, 모니터링, 연구 과제, 해양기상예보(엘니뇨), 해양 및 기후 과학 분야의 통합 업무 등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tuna의 보도에 따르면 NOAA의 새로운 수장으로 에우헤니오 피네이로 솔레르(Eugenio Pineiro Soler) 부국장이 취임하였다. 이러한 발표는 NOAA에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NOAA의 2026년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NOAA 연구를 중단하고 모든 기상 및 기후 연구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다른 중대한 변화는, 의회가 승인할 경우 해양수산 분야 관리감독(NOAA 수산청이 현재 이를 주관함)이 내무부 산하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하, USFWS)으로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이다.

USFWS는 내륙 및 담수어, 멸종위기종, 그리고 육상 보존을 담당한다. 이는 NOAA 수산청의 업무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참치를 비롯한 자연산 어류의 관리, 보존, 연간 할당량 배정, 그리고 규제는 USFWS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어업 활동과 규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올해 초, 대서양 참다랑어는 1월 중순 할당량이 소진된 후에도 NOAA가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 조치로 인하여 어업 중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남획되었다.

NOAA는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 부처(이하, DOGE)로 인하여 수많은 직원이 해고되었다. 지난 2월에는 1,200명의 NOAA 직원이 해고되었다. 지난 17일에는 NOAA의 수백 명의 직원에게 다시 해고되었음을 알리는 서한이 발송되었다. 이들은 NOAA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수습 직원들이었다. 미국 정부는 1,029명의 NOAA 직원을 추가로 감원할 수도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참치



및 기타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이하, SIMP)'이다. 2024년 NOAA 수산청은 IUU에 연루된 수산물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SIMP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을 발표하였다. SIMP 개선 작업은 NOAA의 격변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도 있다.

미국 언론사 NPR에 따르면, 예산안 초안에 포함된 많은 변경 사항이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싱크

탱크가 기획한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에 제시된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이 문서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 '프로젝트 2025'는 NOAA를 "분할하고 축소"할 것을 요구하며, 국립기상청과 같은 부서는 유지하고 NOAA의 다른 여러 부서는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17일자

트럼프, 미사모아 보호수역 참치어업 등 개방

어업 및 경제 활성화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7일, '태평양 섬 해양유산 국립기념수역(이하, PRIMNM)'을 상업 어업용으로 개방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하였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PRIMNM 경계로부터 50~200 해리 내에서 미국 어선에 의한 상업 어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태평양에서의 어업을 촉진하여 아메리칸사모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해당 대통령령의 목표이다.

미국 어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강화하고, 현지 사회를 지원하며, 과도한 규제에 의한 업계의 불이익을 없애고 국제 경쟁력의 형평성을 되찾는 것이 이번 대통령령의 취지이다. PRIMNM에서의 상업 어업 금지로 인하여, 미국 어선이 태평양 제도의 미국 EEZ의 절반 가까운 수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IUU 어업과도

연루된 중국 등 해외 선단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미 정부 측은 설명하였다.

미 정부 측은 상업어업 금지가 아메리칸사모아와 같은 자국령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메리칸사모아는 미국산 참치류를 조달해 미 군과 학교급식용으로 가공하는 시설의 거점이다. 이들의 통조림 공장은 약 5,000명을 고용하는 사모아 최대 고용창출 기업이다.

PRIMNM은 2009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설정되어 오바마 정권 때에는 40만 제곱마일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참치와 부어류가 자연계에서 회유하기 때문에 PRIMNM 내에 머물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PRIMNM 내의 상업 어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 어획 방지나 자원 보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4월 24일자



日, 참치 지방 12초 내 식별 기술 개발 가다랑어 등 다양한 어종에 적용 목표

일본 연구진이 냉동 날개다랑어의 지방 함유량을 측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진에 따르면, 'SONOFAI T-01'로 불리는 해당 기기는 참치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최소한의 노동력만으로 12초 안에 지방 함유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장비 기업 후지쓰 주식회사,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소노파이, 식품 가공 장비 제조업체 이시다테크 주식회사, 도쿄대학교의 연구진 등이 협력하여 'SONOFAI T-01'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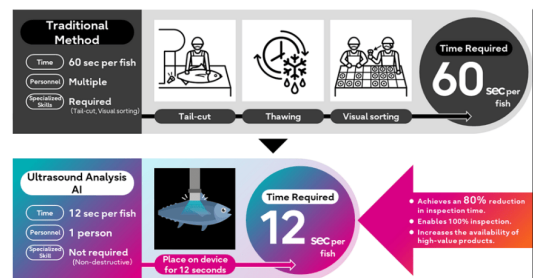
Figure 1. Diagram of the SONOFAI T-01

〈SONOFAI T-01이란?〉

기존의 지방 검출 방식에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해동된 생선 꼬리 단면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일관성이 떨어지기 쉽다. 후지쓰는 성명을 통하여 숙련된 인력 부족과 판단력의 차이가 식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SONOFAI T-01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꼬리 절단 과정 자체에서 지방 함량을 12초 이내에 검사하여 식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0%의 인건비 및 운영

효율성 절감을 보장한다”라고 개발진 측은 말하였다.



(기존 참치 지방 검사 공정과 SONOFAI T-01 공정 비교)

〈SONOFAI T-01의 미래〉

해당 장치의 개발 작업은 2022년에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시험은 2023년 냉동 날개다랑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해당 제품의 6월 출시를 예상하고다. 후지쓰는 “이시다테크는 초음파 분석 AI에 최적화된 자동 검사 장비를 개발하였고, 소노파이는 후지쓰가 라이선스를 받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초음파 분석 AI 기술을 SONOFAI T-01에 통합하였다.”라고 개발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장치는 현재 냉동 날개다랑어에만 적용할 수 있지만, 연구진은 이를 다른 참치 종, 특히 가다랑어 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소노파이는 신선도, 경도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호환 가능한 어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연구진 측은 말하였다.

이 장치는 세계적으로 고급 참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명되었다. 일본 수산연구교육청은 지난 20년간 고급 참치 수요가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8일자



세계 참치의 날

가장 널리 소비되는 어종 보존을 위한 도전

매년 5월 2일은 참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참치의 날'이다. 참치는 세계 식량 안보, 어업 경제, 해양 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수산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참치는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에 따르면 참치는 이 같은 가치로 인해 “영양학적 성공의 희생양”이 되어 어획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참치 어종의 약 33.3%가 생물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전이 있다. 해양관리협의회(MSC)에 따르면, 좋은 어업 관행을 인증하는 블루 에코라벨을 받은 참치의 판매량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24% 증가하여 약 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신선, 냉동, 통조림, 조리, 동물 사료용 가공 제품까지 모두 포함된다.

현재 전 세계 야생 참치 어획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82만 톤의 참치가 MSC 인증 어장에서 생산된다.

참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여러 국가에 서식한다.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 때문에 지역수산물 관리기구(RFMO)를 통한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FAO의 최신 세계 어업 및 양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어획된 가다랑어는 300만 톤, 황다랑어는 150만 톤을 어획하였다. 매년 총 700만 톤 이상의 참치 및 참치 유사 어종이 어획되며, 이는 전 세계 해양 수산업 총 가치의 20%, 세계 수산물 무역의 8%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참치의 날은 전 세계 식량 공급에서 참치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해양 보호와 참치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치를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양 균형을 보존하고 수백만 명의 생계를 보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식량 공급원을 보장하는 일이다.

* 출처: Pescaire, 2025년 5월 2일자



中 선단 냉동 오징어, 높은 가격대 유지

아르헨 일렉스 오징어 3월 말 시점 9만 3,000톤 어획

일본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선단이 적도 상에서 어획하는 소형 아메리카대왕오징어(적도오징어)의 중국 시장 가격은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 시점에 1미 300~500g이 2만 2,500위안, 500g~1kg 2만 3,500위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 수준의 어획 추세를 이어가면서 1일 1척당 3~5톤을 어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오징어 원료가 부족한 와중에 오징어 어가의 고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공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페루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 어업은 북부 산지에서 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양이 어

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상사 소식통은 전하였다. 칠레에서는 3월 중순~하순에 악천후나 어업자의 데모 등으로 출어 횟수가 감소하여 양륙량도 감소하였으나, 출어는 서서히 재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선단의 자국 EEZ 내 일렉스 오징어 어업은 3월 26일 시점에서 전년과 같은 수준의 9만 3,000톤을 어획하였다. 어획물의 구성은 1미 100~200g이 전체의 7~8할을 차지하고, 약 2할이 200~300그램이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매입 의욕은 강한 상황이며, 고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4월 12일자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출 신기록 수립

일렉스 오징어 수출량 및 수출액 22%, 34% 증가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월 아르헨티나의 수산물 수출은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오징어는 강력한 국제 수요 및 양호한 어업 환경이 결합하면서 기록적인 물량이 공급되었고, 아르헨티나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2월 한 달간 총 6만 5,237톤의 수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였다. 전년 대비 물량은 16% 증가, 금액은 21% 증가한 2억 2,080만 달러에 달하였다.

아르헨티나는 2월에 1억 560만 달러 상당의 일렉스 오징어 3만 9,348톤을 수출하였다. 전년 대비 물량은 22% 증가, 금액은 34% 증가하였다. 일렉

스 오징어의 평균 수출액은 톤당 2,683.8달러로 지난해 대비 10% 증가하였다.

시장별로 보면 1위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액은 2만 8,252톤으로 지난해 대비 물량은 177% 증가, 금액은 8,410만 달러로 104% 증가하였다. 태국 수출량도 4,962톤으로 67%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1,760만 달러로 73% 증가하였다.

한국 수출량은 3,790톤으로 지난해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1,040만 달러로 47% 감소하였다. 또한 브라질로의 수출량도 3,185톤으로 8% 감소, 수출액은 1,050만 달러로 9% 감소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9일자



中 오징어 선단, 다시 페루 접근

칠레 입항하여 페루 규제 회피

중국 오징어 선단이 페루 영해에 접근하면서 IUU 어업에 대한 페루의 우려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총 400척의 무허가 타국 오징어 선단이 페루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 결과 대왕오징어(홍볼트 오징어)의 어획량은 급감하였다.

페루 생산부는 최고령 제014-2024-PRODUCE 호를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특히 대왕오징어를 노리는 외국 어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당 선박들이 국내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페루의 위성 추적 시스템인 SISESAT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태평양대왕오징어관리위원회(이하, CALAMASUR)’의 알폰소 미란다 회장에 따르면 해당 규제는 즉시 발효되었다. 규제가 시행된 이후, 페루 항구에 외국 오징어 어선이 입항한 사례는 긴급 의료 목적으로 접근한 1건을 제외하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외국 오징어 어선에 SISESAT 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는 어선은 없다고 CALAMASUR 측은 말하였다. 대신, 일부 선박이 페루의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칠레에 입항하는 쪽을 택하였다.

CALAMASUR 측은 시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르과학대학교(Universidad Científica del Sur)와 협력하여 해당 법령을 분석하는 정책 보

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페루 당국의 감독 상 허점 해소 노력을 호평하면서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새 취약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종 법령에는 외국 선박이 페루 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자국의 SISESAT과 호환되는 승인된 시스템에서 추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 전문가이자 논문 공동 저자인 피에로 로하스는 이 조항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법령 집행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로하스는 승인 절차로 인하여 해외 기관의 추적 신호가 공개 협의나 영향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로하스는 이 점이 투명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수산 엔지니어인 이반 고메스는 페루 선단에 내장된, 불법 조업 활동 시 실시간으로 개입하는 데 필수적인 강력한 경보 및 경고 기능이 외국의 추적 시스템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란다 회장은 외국의 오징어 선단이 매년 이맘때 남태평양에 접근한다고 지적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미란다 회장은 “이 법령은 진전된 조치이지만, 투명성, 기술적 엄격성, 협력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10일자



트럼프 관세로 마-중 오징어 무역 중단

100% 넘는 관세, 사실상 금수 조치로 작용

중국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양국의 오징어 수출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오징어 제품에는 현재 301조 관세 25%, 펜타닐 관련 관세 20%, 그리고 125%에 달하는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포함하여 총 17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오징어에 대해 보세 창고로 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의 높은 관세 장벽으로 인하여 오징어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보스턴에서 개최된 북미 수산 엑스포 이후, 미국으로부터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중국 저장을 근거로 하는 한 가공업체 관계자가 말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관세로 인하여 동종업체 타 회사들도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말하였다.

2024년 미국은 6만 4,341톤의 냉동 오징어류 및 갑오징어류(HS 코드 030743, 030749, 16054)를 수입하였다. 이 수치는 2023년의 수입량인 6만 1,662톤 대비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중국산의 비중은 1만 1,583톤(전체의 18%)으로, 2023년의 1만 2,116톤(20%) 대비 물량과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미국의 중국산 냉동 오징어류 및 갑오징어류 수입량은 2,155톤으로,

2024년 1~2월 수입량(2,031톤) 대비 증가하였다.

중국 푸젠성의 한 수출업자에 따르면, 관세 인상 이전에 이미 많은 물량이 수출되었다.

해당 수출업자는 “우리는 트럼프 당선 이후 많은 불확실성을 예상하고 작년 11월부터 미국 구매자들과 함께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25년 1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악의 경우 2분기에는 수출이 0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였다.

해당 수출업자는 100%를 초과하는 관세는 사실상 금수 조치로 작용한다고 덧붙이며, “중국이 미국산 원어 구매를 중단하면 미국 수출업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미국산 오징어류(HS 030743, 030749)의 대중국 수출은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9,086톤과 1만 2,971톤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2024년 총 수출량은 3만 9,978톤이었다. 그러나 2025년 1월과 2월의 월간 수출량은 각각 3,334톤과 4,565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오징어의 자국 매출 증가 예상〉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원양 어획량은 약 200만 톤으로, 이 중 오징어 및 갑오징어류 어획량은 약 1/3인 70만 톤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어획량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자국 선단의 오징어 어획량 외에도, 많은 양의 오징어를 태국, 아르헨티나 및 여러 동남아 국



가에서 수입한다. 2024년 중국의 오징어류 및 갑오징어류 수입량은 약 38만 2,000톤으로, 2023년의 45만 2,000톤 대비 감소하였다.

중국으로의 오징어 공급 추세는 매년 공급국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2023년에 중국 시장으로의 오징어 최대 공급국은 페루였으나,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페루에서의 대왕오징어 어획량 변동으로 인한 것이다.

중국은 오징어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물량의 상당수는 자국 시장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중국 저장성의 한 소식통은 말하였다.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자국 매출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JD.com, 알리바바 산하의 Hema, Yonghui Superstores, CR Vanguard, RT-Mart, Easy Buy 등 다수의 유통업체 및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국 오징어 소비 증진을 위하여 이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저장성의 관계자는 “올해는 자국 시장으로의 초점 변동을 계획하고 있다. Hema나 RT-Mart 등의 업체와 협업하여 자국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30일자

페루 오징어 가격 급락 칠레 오징어 어획량 및 수출량 회복

페루 언론사 ‘Infobae’에 따르면, 페루산 대왕오징어(홍볼트 오징어) 가격은 단 며칠 사이에 kg당 7 페루 솔에서 5 페루 솔로 약 30% 하락하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1.88 달러에서 1.35 달러로 하락한 셈이다.

페루 장인형 어업 단체인 ‘Sonapescal’은 이러한 가격이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가격 동결을 원하는 회사들의 담합 의혹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급락으로 인하여 연안 지역 수천 가정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였다고 Sonapescal 측은 주장하였다.

2024년 페루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인접국인 칠레에서는 어획량이 회복세였다.

칠레에서 ‘Jibia’라고 불리는 대왕오징어의 2024년 수출량은 2019년 대비 무려 211%나 성장하였

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장인형 어업의 성장세 및 한국, 스페인,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칠레 언론사 Emol은 보도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칠레의 ‘Jibia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Jibia 법’은 산업형 트롤 어업을 금지하고 장인형 어업으로 오징어 조업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령은 6개의 가공 공장 폐쇄 및 1,700개의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하였다.

법 시행 후 초반에는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24년 칠레의 수출액은 1억 7,800만 달러로, 2023년 대비 56%나 증가하였다. 2025년 1~2월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9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10일자



Alpescas, 지속 가능한 오징어 어업 관리 요청

오징어 관리의 격차 해소를 위한 행동 촉구

‘지속가능한 어업과 식량 안보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연합(이하, Alpescas)’은 남미 홈볼트 오징어 어업 참여자들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Alpescas는 국제기구에 홈볼트 오징어 어업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저해하는 관리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호소는 4월 27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Alpescas의 제10차 정기 회의에서 서명된 리마 선언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2018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페루가 책임 있는 어업과 식량 안보 증진을 위해 창립한 Alpescas는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에 홈볼트 오징어 어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어종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다.

Alpescas 회장 오시엘 벨라스케스는 페루 생산부장관, 페루 환경부 차관, 에콰도르 고위급 업계 대표

등 고위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벨라스케스는 이들의 참석이 홈볼트 오징어를 포함한 지역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페루 국립수산협회(SNI)의 어업 및 양식 위원회 위원장인 알폰소 미란다 에이자구이레는 남태평양 홈볼트 오징어와 남대서양 일렉스 오징어 어업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두 어업 모두 국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원양 어선단의 조업 압력을 견뎌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선박이 국제 규제를 회피하지 못 하도록 항만국조치협정(PSMA) 엄정 준수를 당국에 촉구하였다.

리마 선언은 또한 지역 어업 관리를 국가관할권을 넘어 해양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정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28일자





포클랜드 로리고 오징어, 첫 어기 종료

자원량 급감 우려

‘포클랜드제도 정부는 생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여러 예방 조치를 시행한 후, 어기 시작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예정일인 4월 27일에 어기를 종료하였다.

포클랜드제도 천연자원부의 제임스 윌슨 국장은 “생물량은 지난 5년간 최저치이며, 2010~2020년 대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하였다.

4월 9일, 당국은 어획된 오징어의 성숙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관측한 후 2개 어장에서의 조업을 종료하였다. 4월 말에는 업계에서 미성숙 오징어 유입에 대한 보고가 전해진 후, 보헤네 섬 주변의 구역 세 곳에서의 조업이 4월 25일에 종료되었다.

3월의 어획량은 약 2만 2,000톤으로, 이 시기의 평균 어획량인 약 3만 톤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는 기존에 스페인 비고 선주협회가 예상하였던 어기

전체 예상 어획량인 4만 5,000톤에 훨씬 못 미친다.

신규 선박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40년간 건조된 트롤선 중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3,000만 유로 가치의 신조선 ‘Hadassa Bay’호는 첫 항해 중 엔진 문제로 인하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예인되었다.

스페인 선사들은 어기가 초기에 종료되면 2억 4,000만 유로의 선단 개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선박은 대체 어종인 헤이크 등을 어획하기 위하여 공해로 이동하였다.

당국은 과감한 어업 종료 조치가 올해 말 두 번째 어기를 대비하여 로리고 오징어 개체수가 회복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30일자

러, 24년 190만 톤, 49억 달러의 수산자원 수출

생산량, 지난해 대비 8% 감소

러시아는 2024년 190만 톤, 49억 달러의 수산자원을 수출하였다고 러연방 수산청장이 밝혔다.

2024년에 어획된 수생 생물자원의 양은 2023년에 비해 8% 감소한 490만 톤으로 어류 생산 주요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5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2024년 어류 제품 생산량은 5.3% 감소한 38만 500톤을 기록하였다. 동시에 2024년 수출은 190

만 톤 49억 달러에 달하였고 수입은 68만 6천 톤으로 약 30억 달러로 4.6% 증가하였다."라고 세스 파콥 수산청장은 말하였다.

드미트리 빠트루셰프 부총리가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러시아는 냉동 생선 공급에서 세계 선두이다.

* 출처: Fishnews.ru, 2025년 4월 9일자



러 명태 H&G 가격, A시즌 종료 후 소폭 하락

A시즌 마지막 3~4주간 생산량 증가

러시아 명태 H&G(머리, 내장 제거)의 가격이 어획량이 증가한 A시즌 어기 종료 이후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언더커런트뉴스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7주 차(4월 21일~27일) 중국산 25cm 이상 냉동 명태 H&G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일부 소식통은 여전히 최고가와 같은 수준이라고 전하였다.

다만 2022년과 2019년 17주 차의 가격은 각각 톤당 1,450달러, 톤당 1,520달러로, 현재 가격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수의 러시아 어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A시즌 마지막 3~4주 동안의 명태 H&G 생산량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확연히 많은 수준이다. 쿼터를 활용하고 명태알 생산량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막판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A시즌 종료일인 4월 9일 시점 생산량은 35만 4,00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다. 그러나 4주 전 시점에서의 생산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10% 적은 수준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 어업회사 임원은 “A시즌 마지막 4주간 어획량은 전년도 A시즌 마지막 4주

대비 25%나 증가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올해 연초 생산량 부진은 중국의 수입량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1~2월 중국의 러시아산 명태 H&G 수입량은 4만 9,506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4%나 감소하였다.

〈가격 전망〉

러시아의 명태 H&G 생산량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은 하반기에 나타난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가공업체가 수익을 내려면 하반기에 시장의 필렛 수요가 보다 강해져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명태 무역업자는 “지금의 H&G 가격 수준이라면, 필렛 가격이 더 상승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해당 무역업자는 H&G 가격 톤당 1,400달러 기준으로 유럽 필렛 가격이 톤당 3,100달러는 되어야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부 이중 냉동(double-frozen, 선상에서 냉동 후 가공 시 해동한 다음 재냉동되는 제품) 명태 필렛 거래는 낮은 가격에서 계약이 체결 중이지만, 다른 일부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하여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25일자



美 “中 가공 알래스카 명태 관세, 사례별로 판단”

공식 지침 전 추가 검토 필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 대변인은 자국산 수산물을 중국에서 가공하여 재수입할 경우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사례별로 판단하여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CBP는 “수입 품목의 가치 기준 20% 이상이 미국산 구성 요소로 구성된 경우, 미국 관세에서 미국산 내용물의 가치를 제외한다”라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로 알래스카산 H&G(머리, 내장 제거) 대구, 가자미, 명태 등으로 구성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이 중국으로 이동하여 가공된 후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CBP 측의 답변은 모호하였다.

대변인은 “각각의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변인은 “지침이 필요한 수입업자는 세관 메일로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어떤 ‘품목’이 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의 형태와 확연히 다른 새 명칭, 새 특질, 새 용도를 얻게 되려면 ‘상당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CBP 대변인은 이러한 분석이 원산지를 결

정할 때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하였다.

CBP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수산물을 중국에서 필렛으로 가공하는 것은 ‘상당한 변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필렛 제품 등은 중국산 제품으로 간주된다고 대변인은 말하였다.

“중국에서 필렛으로 변형된 미국산 수산물 수입 시 HTSUS 9903.01.34 조항(2025년 4월 도입된 “상호관세”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미국산 구성 요소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경감해주는 특별 규정)을 적용한 해당 사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지침이 내려지기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대변인은 말하였다.

Undercurrent News 측에 따르면, 미국산 수산물을 중국에서 가공 후 미국으로 재반입하는 것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역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공급업체에서는 여전히 무역이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16일자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조항 기한, 혼란 유발

최종일 7월 9일 해석돼

수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의 미국 반입 시, 현재 90일 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7월 9일로 해석된다고 다수 무역 관련 변호사와 수산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무역 변호사이자 올슨 프랭크 위다(Olsson Frank Weeda) 로펌의 대표인 제스카 리프킨(Jessica Rifkin) 등은 이는 해당 제품이 7월 9일까지 미국에 도착해야 하며, 해상에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미국으로 운송 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EO) 제14257을 수정하기 위하여 4월 9일에 발표한 행정명령(EO) 14266의 표현과 관련이 있다.

행정명령 제14266은 모든 국가에 일반 10% 관세를 유지하되, 7월 9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까지 90일간 관세 인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유예 기간을 얻기는 했으나, 수산물 무역업자들은 행정명령 제14266호에 포함된 운송 관련 추가 조항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일부는 해당 제품이 7월 9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까지 미국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고, 다른 이들은 해당 제품이 그때쯤 이미 미국에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리프킨 변호사는 도착 마감일로 해석하였다. 리프킨은 “새로운 관세가 발효될 당시 운송 상태에 있는 상품에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운

송 중인 상품에 대한 면제는 각 관세 조치에 대해 행정명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리프킨 변호사는 그런 일이 행정명령 제14266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2월과 3월에 발표한 펜타닐 관련 행정명령의 사례를 들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2월 7일에 발표되어 2월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월 1일까지 미국으로 운송 과정에 있는 상품에는 예외를 적용하였다. 3월 7일에 발표된 두 번째 행정명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20%로 인상하였으나, 추가적인 운송 유예 기간은 부여하지 않았다. 3월 4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상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리프킨 변호사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조언하며, 지금까지 세관 및 국경 순찰대에서 수입품에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는 새로운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 제14266의 제2항의 표현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해당 내용은 이하와 같다:

“2항. 국가별 종가세율(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의 유예.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창고에서 출고한 물품에 대해 2025년 4월 10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 이후에 발효되며, 행정명령 제14257조 제3항 (a)의 두 번째 단락의 집행은 2025년 7월 9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까지 중단된다. 2025년 4월 10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부터 2025년 7월 9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까지 발효되며, 미합중국 관세 영역으로 수입된 모든 품목은 법에 근거하여 행정명령 제14257조에 명시된 모든 예외에 따라 10%의 추가 종가세율이 적용된다.”

업계에서 수십 년간 종사한 새우 회사의 한 임원은 이번 정부가 관세 정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이런 혼란은 난생처음 겪어 본다”라고 언급하였다.

다른 새우 수입업체의 또 다른 임원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90일 유예조항에 대하여 어떻게 일을 추진하면 될지 해석하고 답을 얻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 90일 기한까지 매일 시간

은 닳쳐오고 있는데,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해당 새우 회사 임원은 “현 정부에서 여러 번 그랬듯이, 이러한 발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발표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90일 유예 조항은 더욱 그렇다. 2항은 10번을 넘게 읽어도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다만 아시아 지역에서 새우를 수입하는 2개 주요 공급업체의 관계자는 리프킨 변호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18일자

러 나홋카에 명태 공장 신설 도브로플로프 계열 공장...2026년 가동

일본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 지방 수산 대기업 ‘도브로플로프’ 계열사인 ‘유쥬 모르리브플로트(Южморрыбфлот)’사는 연해 지방에 위치한 도시인 나홋카에 명태 가공 공장을 신설한다. 생산 능력은 제품 기준으로 1일당 120톤이다. 2026년 3분기(7~9월)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가 정한 자유무역 특구 제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를 통하여 건설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액은 31억 루블(약 55억 엔)이며, 325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브로플로프사의 알렉산드르 예프레모프 대표는 원어를 그룹 산하 어선단에서 공급하여, 어획부터 가공, 제품 물류까지 일관된 MD(상품정책)

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공사에서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하는 켄트레이 쓰칼리 전무는 이것이 러시아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도브로플로프사는 1911년 창업한 장수 기업이다.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 최대 선상 가공선 ‘프세볼로드 씨비르체프(Всеволод Сибирцев)’호의 선주이기도 하다. 해당 선박은 3만 2,000톤급으로, 1989년에 통조림 등의 해산 가공을 목적으로 건조되었으며, 2010년대부터 2020년대에 걸쳐 일본 선단 등이 어획한 북태평양 공해 쏜치를 수송하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5월 7일자



러시아, 세계 5대 연육 생산국 진입

연육 생산 4년 만에 달성

러시아에 게맛살은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5년 동안 이 제품의 원료 생산량을 15배 증가하여 세계 5대 생산국에 진입하였다. 이제 러시아는 자체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였으며, 연육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연초부터 러시아 어부는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4만 1,400톤의 명태 연육을 생산하였다. 연말에는 8만 5천~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5~17%는 극동 연안 공장에서 나머지는 가공 선박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부글락 명태협회장은 알렸다.

이미 2024년 말까지 러시아는 상위 5대 연육 생산국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은 4년 만에 달성하였다. 2020년까지 러시아 어민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였다.

생산량 증가는 러시아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러시아 연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태 제품 중 가장 유망한 제품 중 하나라고 믿는다.

리서치 회사 NTech에 따르면 2024년 연육의 매출은 금액 기준 24.2%, 수량 기준 13.8% 성장하였다. 이 제품들은 수산물 카테고리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실물 기준 11.2%를 차지한다. 또한 연

육은 게맛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생선 소시지, 국수, 다양한 어묵 간식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최종 제품 생산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전년 대비 1.9배 많은 2만 1,000톤의 연육이 러시아 국내 시장에 공급되었다.

연육 제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1위 공급국인 러시아는 한국에서도 같은 성과를 이루고 싶어 한다.

러시아 어선주협회는 2028년까지 연육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여 1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고품질 수산물로 만든 제품은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어선주협회는 설명하였다.

어선주협회는 러시아 국내 연육 제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급식 시스템(병원, 요양소, 학교, 법 집행 기관 등)을 활용하여 구매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출처: Fishportal, 2025년 4월 15일자



러 명태 연육 생산량, 예상치보다 20% 더 많아

4월 21일 시점 전년도 대비 37% 증가

2025년 4월 21일 시점 선상 가공 러시아 명태 연육 생산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4만 3,467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주요 러시아 수산단체의 기존 예상치를 20%나 뛰어넘은 수준이다.

다수 러시아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대 생산 기업인 RFC의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49%나 증가한 3만 685톤이다. Gidrostroy의 생산량은 15% 증가한 1만 2,782톤이다.

RFC의 주요 성장 원인은 선상가공 트롤 선단 확장이다. RFC는 2024년 3분기에 'Captain Martynov' 호를 도입하면서 선단을 4척에서 5척으로 확장하였다.

러시아 명태어업협회(이하, PCA)는 4월 11일 성명을 통하여, 4월 9일 종료된 A시즌 연육 생산량이 총 4만 1,400톤으로, 전년도 대비 3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A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로 2,600톤이 생산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나갔다.

전 러시아 어업 및 수출 협회인 VARPE는 지난 2월 러시아의 2025년 연육 총 생산량이 2024년 대비 20% 증가한 8만 5,000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생산량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연육 생산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명태 어획량은 약간 감소하였다. 4월 21일까지의 명태 어획량은 106만 9,00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지정된 하부 수역에서 어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선박은 4월 9일 A시즌이 끝난 후 정기 유지보수를 받고 있다.

연육과는 대조적으로, 4월 21일까지의 H&G(머리, 내장 제거) 명태 제품의 생산량은 육상 가공 제품을 포함하여 36만 1,089톤으로 전년도 대비 3.2% 감소하였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Gidrostroy, Norebo, Sigma 등의 기업은 H&G 생산량을 늘렸으나, RFC는 H&G 생산량을 감축하였다.

2025년 B시즌은 6월 2일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업계 관계자들은 연육 생산량이 이번에도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 B시즌 러시아 선단은 서베링해에서 어기 후반 동안 어획량 부진을 겪었다. 올해 쿼터가 모두 소진될 경우, 연간 연육 생산량은 VARPE의 예상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24일자



세계 최대 공모선 프셰볼로드 씨비르제프는?

공학적 경이로움으로 4개월간 재급유 없이 운항 가능

프셰볼로드 씨비르제프(Всеволод Сибирицев)는 크기, 성능, 역사로 유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모선이다.

공모선은 선내에 생선을 가공하고 냉동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대식 공모선은 자동화되어 있으며 초기 포경선보다 더 크다.

이들 중 일부는 소형 어선의 어획물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선박인 모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동 선박의 길이는 179m, 폭 28m, 높이 45m에 흘수 7.9m이며, 배수량 2만 6,634톤, 최대 속력은 14.9노트, 6,48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공모선은 소련 시절인 1989년 핀란드에서 건조되었으며 혁명가인 프셰볼로드 씨비르제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 배는 극동 수역에서 가장 진보된 선박 중 하나로 소련 국기를 달고 운항하며 어업의 상징이 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이 배는 그리스로 헐값에 매각되었고, 이후 중국에서는 이 배를 해상 호텔로 개조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다가 이후 선박 해체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4년 러시아 어업 회사인 도브로플로프(Добро

флот)가 이 선박을 인수하여 러시아로 다시 가져왔다. 그 후 이 대형 공장 선박은 가공 라인 복원, 냉동고와 컨베이어 설치, 작업 갑판 및 기관실 수리 등의 선박 개조를 거쳤다.

2020~2021년간 이 선박은 정어리, 고등어, 명태, 참치, 연어, 꽁치, 청어 등의 6만 4,600톤의 원어를 처리하여 5,600만 캔 이상의 통조림 제품을 생산하였다. 현재 이 선박은 매일 650톤의 생선, 1만 1,000박스의 생선 통조림, 15톤의 어분을 처리하며, 120톤의 어분과 어유를 생산한다.

이 선박에는 약 520명의 승무원을 위한 2인용 선실과 사우나, 영화관, 강당, 체육관, 탁구장, 수영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있다. 또한 수술실, 병실, 치과 수술실 등을 갖춘 의료 센터도 있다.

이 외에도 역삼투압 기술을 사용하여 매일 최대 455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해수 증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악천후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쪽에 5개의 탱크가 있는 밸런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학적 경이로움을 자랑하는 이 선박은 최대 4개월간 재급유 없이 장기간 운항할 수 있어, 러시아 수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남아 있다.

* 출처: Marine Insight, 2025년 4월 10일자



러, 어류 가공을 위한 육상 단지 건설

가공 단지에 54억 루블 투자

2025년 말까지 기드로스프로이(Гидрострой)는 사할린의 오제르스꼬예 마을에 새로운 현대식 육상 생선 가공 단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업선이 위치할 부두의 대대적인 재건축이 이미 진행 중이다. 이는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이 회사가 건설하는 네 번째 육상 단지가 될 것이다. 1만 ㎡ 면적에 들어설 새 단지는 하루 600톤의 생선(필렛 중심)을 처리할 수 있으며, 냉동 용량과 보관 용량은 각각 325톤, 3천 톤이다. 육상 공장에서는 청어, 명태, 대구 등 흰살 생선과 핑크 및 참 연어를 가공할 수 있다. “새 포장 기술을 통해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드로스프로이 대표이사인 유리 스베틀리코프는 말하였다.

공장의 건설과 장비 설치에는 총 150명의 인력과 약 30대의 중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하루 최대 30톤의 어분을 처리할 수 있는 어분 공장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하여 폐기물의 완전한 재활용이 보장된다. 새로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주로 코르사코프 지역과 사할린 남부 주민과 전문대학 졸업생을 고용할 계획이다.

동사는 전러시아 어업 및 수출 협회의 회원사로 러시아 최대 어업 회사 중 하나이다. 현재 72척의 어선, 최대 규모의 운반선단, 5개의 육상 어류 가공 단지, 14개의 연어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다.

* 출처: Fishportal, 2025년 5월 5일자

러 선주, 한국의 청어와 명태 수입 감소에 주목

청어 41%, 명태 7% 감소

한국의 러시아산 청어와 명태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러시아 어선주협회(ASRF)는 알렸다.

2025년 1분기 냉동 청어 한국 공급량은 8,200톤에서 4,900톤으로 지난해보다 41% 감소하였다. 3월 공급량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감소량을 만회하지 못하였다.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냉동 청어는 러시아산이다. 1분기에는 4,800톤이 러시아산이었으며, 노르웨이(48톤)와 미얀마(5톤)에서 소량 공급되었다. 3월 청어 수입 평균 가격은 전년 대

비 4% 감소하였다. 2025년 1분기 냉동 청어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43% 감소하였다.

어선주협회는 또한 한국으로의 냉동 명태 출하량이 전년 동기 4만 5,800톤에서 1분기 4만 4,600톤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분기 감소율은 7%로 2024년 말 13%에 달했던 한국 명태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었다”라며 “한국 냉동 명태 수입의 거의 100%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다(1분기 점유율은 99.65%)”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Interfaks, 2025년 4월 21일자



한국으로의 러시아 대구 수출 증가

단가 상승으로 수입액 47% 증가

한국은 2025년 1분기에 총 1,522톤의 냉동 대구를 수입했으며, 이는 1,394톤을 수입한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2025년 3월에만 수입량이 373톤으로 2024년 3월의 503톤보다 26% 감소하여 월별 공급량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냉동 대구의 대부분(97%)은 러시아에서 수입되었으며 1,476톤에 달하였다. 나머지는 캐나다(34톤)와 미국(12톤)에서 수입되었다.

원산지별 수입 가격은 kg당 러시아 4.24달러, 미국 3.50달러, 캐나다 1.88달러였다.

금액 기준으로 3월 수입액은 총 188만 달러로 지

난해 같은 달의 175만 달러보다 7% 증가하였다. 1분기 누적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63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평균 수입 가격이 2024년 1분기 3.12달러에서 34% 상승한 4.19달러로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냉동 대구는 이 기간에 총 23만 4,669톤이 수입된 한국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0.65%를 차지하였다. 업계 전문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 공급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향후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5년 4월 16일자

러시아와 모로코, 수산 분야 협정 체결

최대 10만 톤 쿼터 확보 가능

러시아 정부는 해양 수산 분야 협력에 관한 러시아와 모로코 간의 협정 초안을 승인하고 외교부 및 기타 관련 연방 행정 당국과 합의하였다. 이 협정은 모로코의 어업 구역에서 러시아 선박의 어업 조건을 정의한다.

협정은 모로코의 EEZ서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 및 사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력 원칙을 설정하고, 모로코의 대서양 어업 구역 내 러시아 국적 조업 선박의 어업 활동 조건을 정의한다.

협정 첫해에 모로코 대서양 어장에서 동시에 조업할 수 있는 러시아 어선의 수는 최대 10척이며,

각 어선의 총톤수는 7,765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협정 이후 몇 년 동안 러시아 어선의 수와 톤수는 양국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러시아 어선은 정어리, 고등어, 전갱이 및 멸치 등 원양 어종을 어획할 수 있다. 어획량의 구성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협정 기간 원양 어종의 연간 어획 할당량은 9만 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쿼터는 양국 간 공동위원회의 틀 내에서 모로코 국립수산연구소의 자원 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쿼터를 증감(최대 10만 톤)할 수 있다.

※ 출처: Portnews, 2025년 4월 11일자



알래스카 명태 산업, 혼획 관련 비판에 진상 규명

어구 개선으로 부수어획 감소와 효율성 향상

알래스카 명태 업계는 트롤 어구가 수중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고 개선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야심 찬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어구 혁신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며, 베링해와 알래스카만 명태 어선단 간의 이례적인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알래스카의 명태 어업은 올해 TAC가 137만 5,000톤인 동부 베링해 어장과 18만 6,245톤인 알래스카 만 어장으로 크게 나누며, 일반적으로 베링해에서 더 크고 강력한 어선을 사용한다. 베링해의 해저는 일반적으로 모래나 진흙이 많고, 알래스카 만에서는 바위가 많고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베링해와 알래스카에서 총 114척의 어선이 원양(pelagic) 어구를 사용하여 명태를 어획하였으며, 베링해에서는 13척의 공모선이 추가로 조업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부분은 어구 목록화를 통하여 원양 트롤 어구의 저서 서식지 교란 추정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트롤 어선은 마력, 선박 길이, 어구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모두 다르며, 각 어선은 다양한 제조업체의 트롤 어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장은 어구의 차이를 반영한 조업을 하고 있다.

이미 50여 척의 어구가 파악되었으며, 어구 어획 방식을 모델링하고 현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어구 이니셔티브는 원양 트

롤 어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저층 접촉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가치 있는 노력이라고 말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알래스카 퍼시픽 대학교 연구소장인 브래드 해리스는 “수십 년간 뛰어난 수산 과학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어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우며 이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명태 성어는 해저면 근처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으며, 2010년 북태평양위원회 서식지 평가에서는 명태 트롤 어업이 해저면과 접촉하는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이에 얼마나 접촉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그는 어구 이니셔티브가 어업 관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부수어획 감소와 연료 효율 향상성을 포함하여 조업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모든 트롤 조업선 어구의 목록화가 포함되며 2026년까지 진행되며,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다. 부어류 트롤 어구의 어느 부분이 해저에 닿는지 파악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며 혼탁한 물속에서 카메라의 시야도 제한적이다.

어구를 바닥에서 단순히 높게 들어 올리면 해저 접촉을 줄일 수 있지만 연어 등 혼획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알래스카 명태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National Fisherman, 2025년 4월 23일자



대구 양식 생산량이 어획량을 따라잡을까?

자연산 어획량 감소가 양식 대구 생산 증가 유도

노르웨이 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 연합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2024년 노르웨이의 양식 대구 생산량은 1만 4,700톤으로 약 45배 증가하였다.

노르웨이 대구 양식 활성화는 2000년대 후반에 발생하였다. 당시 양식 대구 생산량은 약 2만 톤으로 10년 만에 20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대서양 대구 어획량이 2008년 21만 5천 톤에서 2013년 47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구 가격이 하락하고 인공 양식이 수익성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구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양식 대구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다시 열렸다. 2021년과 2024년 사이에 어획량은 38만 톤에서 20만 5,000톤으로 45% 감소하였다. 2025년에도 어획량 감소는 계속 될 것이며 노르웨이의 할당량은 16만 톤에 불과하다.

노르웨이 생선 마케팅 협동조합에 따르면 노르웨이 대구 연평균 도매 가격은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두 배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3월

양식 대구 수출량은 22톤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 1분기에 4,700톤이 수출되면서 자연산 냉장 대구의 수출량인 6,600톤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양식 대구는 생산량의 상대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일 년 내내 신선한 공급, 높은 품질(최대 90% 이상 우수) 등 분명한 장점이 있다.

동시에 양식 대구는 자연산 대구보다 20% 정도 (약 5.8달러/kg) 저렴하다. 2025년에는 노르웨이 전체 대구 수출에서 냉장 양식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노르웨이의 주요 양식 대구 생산업체인 Nordcod에 따르면, 2024년 8,300톤(라운드)의 양식 대구 생산 비용은 kg당 5.6달러로, 수출 가격보다 20센트 낮다. Nordcod는 투자와 대출을 통하여 생산량을 2만 5천 톤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생산 비용이 kg당 4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출처: Fishportal, 2025년 4월 11일자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의 재건

수산 물동량 증가 예상

러시아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는 현재 선석 설치를 진행 중으로 항구의 재건은 수산물의 화물 회전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재개발을 통하여 수산물의 화물 처리량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적인 항만 터미널이 만들어질 것이다. 재건된 항

구는 이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할 것이다”라고 현장을 방문한 러연방수산청장은 강조하였다.

현재 이 현장에서는 선석 설치와 매립 작업이 진행 중으로 항만 인프라 구축은 202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 출처: Portnews, 2025년 4월 27일자



日 공치 TAC, 14% 감소한 9만 5,623톤 제안

1997년 TAC 설정 이후 최초로 10만 톤 미만

일본 수산청은 4월 21일 2025 관리 연도(1~12월) 공치 TAC 변경에 관한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였다. 3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 연례회의에서 결정된 TAC 감축을 반영하여, 전년도 TAC인 11만 911톤 대비 14% 삭감된 9만 5,623톤이 제안되었다. 10만 톤 미만을 기록한 것은 1997년 TAC 설정 이후 최초이다.

3월 NPFC 연례회의에서, 공해의 2025년 TAC는 2024년의 13만 5,000톤 대비 10% 감축된 12만 1,500톤으로 결정되었다.

공해에서의 어획량 총 합계가 TAC의 90%에 도달하면, 1만 톤 이상의 한도를 보유한 국가는 그 시점부터 조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올해의 연례회의에서는 2018년 대비 65.5%까지 삭감하는 국가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65.5% 삭감을 선택하였고, 공해의 TAC는 1만 6,166톤이 되었다. 6월부터 조업을 개시하는 중국 등의 국가가 TAC를 조기에 소화할 경우, 8월

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내유 상황에 따라 12월까지도 조업할 수 있는 일본은 여기 도중에 조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이로 인하여 확실하게 1만 6,166톤의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지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연안국은 EEZ 내의 어획 한도를 10% 삭감된 8만 1,000톤 이내로 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전체 TAC 삭감에 협력하였다. 대상이 되는 일본과 러시아의 최근 3년간(2022~2024년)의 어획 실적으로부터 점유율을 산정한 결과, 일본의 EEZ 내 어획 한도는 7만 9,457톤으로 산출되었다.

그 결과, 공해와 EEZ 어획 한도를 더한 9만 5,623톤이 일본의 2025 관리 연도 TAC 안으로 정해졌다.

배분안은 10%를 국가의 유보로 하고, 장관 관할 분량을 8만 1,600톤, 홋카이도 3,900톤, 이와테 400톤, 그 이외를 현행 수준으로 정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4월 31일자





글로벌 맥락에서의 러시아 쾡치 어업

생산 감소로 가격 상승하였으나 소비는 지속

러시아 통조림에 들어가는 쾡치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얼마나 많이 어획하고, 수입하며 왜 비쌀까?

일본 수산청은 2025년 쾡치의 총허용어획량(TAC)을 9만 5,600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TAC는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만 톤 아래로 설정되었으나, 실제 어획량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4년 일본의 쾡치 어획량은 약 3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2년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2024년 전 세계 쾡치 어획량은 14만 5,000톤으로 2023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어획량을 살펴보면 2014년에 63만 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하였으며, 일본과 대만이 이 중 70% 정도를 어획하였다. 러시아는 그 해에 7만 1천 톤 정도를 어획하였다.

2014년의 기록적인 어획량 이후 2015년의 전 세계 어획량은 두 배로 감소한 35만 9천 톤을 기록하였다. 러시아는 이 중 2만 4천 톤을 어획하였다.

세계 어획량은 지속하여 감소하다 2021년에 9만 2천 톤의 최저치를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연적 및 생물학적 이유로 인한 쾡치 부족을 배경으로 쾡치의 세계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쾡치 통조림은 러시아 소비자에게 여전히 인기가 많으며 통조림 생선 부분에서 청어 통조림 다음인 2위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원자재는 모든 수산물의 가격 상승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며 이에 생산 비용이 추가된다. 두 번째로 선원의 급여가 상승하였다.

러시아는 쾡치를 2022년 0톤, 2023년 50톤, 2024년에는 814톤을 어획하였다.

〈러시아 쾡치 권장 어획량과 실제 어획량〉

2020년: 7만 5,900톤 중 0.99%인 750톤 어획

2021년: 6만 3,700톤 중 0.97%인 620톤 어획

2022년: 3만 5,500톤 중 0톤 어획

2023년: 11만 톤 중 0.05%인 500톤 어획

2024년: 3만 5,400톤 중 2.3%인 810톤 어획

2025년: 2만 5,300톤 어획 권장

러시아 어부는 쾡치가 러시아 수역을 떠났기 때문에 3년 동안 쾡치를 잡지 못하였다. 하지만 쾡치 어업의 긍정적인 추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어획의 부족량은 원료공급을 위해 수입량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5,100톤, 2023년에는 5,700톤, 2024년에는 9천톤을 중국 등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 출처: Fishnet, 2025년 4월 29일자



사우스 조지아 해양 보호 구역, 보호 강화 크릴과 이빨고기 조업 금지 구역 확대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정부 (Government of South Georgia & the South Sandwich Islands-GSGSSI)는 엘리슨 블레이크 CMG 청장이 새로운 법안에 서명한 후 강화된 해양 보호구역(MPA) 조치가 22일(현지 시각)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MPA 5년 주기 전문가 검토가 마무리된 후 2024년 초에 발표된 이 강화된 보호 조치에는 모든 낚시 활동이 금지된 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새로 지정된 '어획 금지 구역'은 47만km² 이상으로, MPA의 38%에 해당한다. 또한 3만 1,000km²의 원양 어획 금지 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이제 MPA 내 50만km² 이상에서 크릴 조업이 금지된다.

이러한 강화 조치는 관광과 지속 가능한 어업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SGSSI의 강력한 해양 보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기존 조치에는 번식 중인 물개 및 바닷새와의 잠재적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해 크릴과 이빨고기 조업을 겨울철로 제한하는 계절적 폐쇄와 124만km²의 MPA 전체에서 저층 트롤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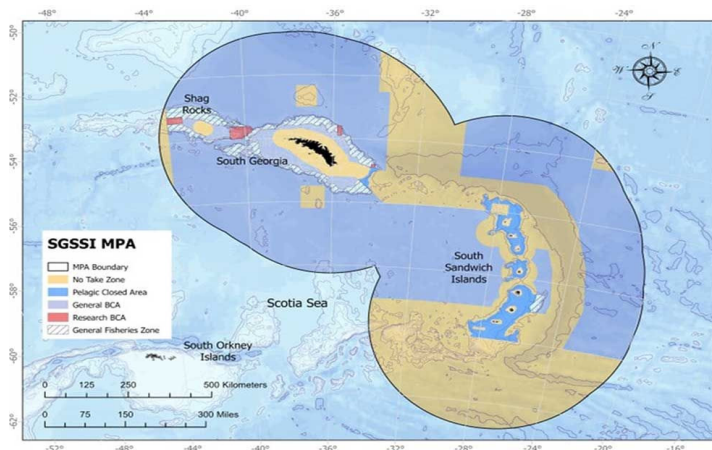
금지가 포함된다.

엄격한 규제와 허가를 받은 어업이 허용되는 5개월 동안 MPA의 40%에서 크릴 어업이 금지된다. 또한 MPA의 95%에서 연승 어업이 금지되며, 취약한 서식지와 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수심 700m 미만과 2,250m 이상의 모든 수심에 걸쳐 있는 일반 저서생물 폐쇄 구역과 어업 가능 수심의 연구 저서생물 폐쇄 구역 네트워크 내에서도 어업 금지가 적용된다.

어획 금지 네트워크는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하지만, 잠재적으로 취약한 해양 서식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지역도 포함한다.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에 대한 세계 최고의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인 SGSSI-MPA와 사우스조지아의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와 장기적인 해양 보존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에 크게 이바지한다.

* 출처: MercoPress, 2025년 4월 24일자





전세계 ‘탈미국’ 현상, 서서히 진행 중

트럼프 관세 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체제를 외면한 잇따른 고관세 정책으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 및 지역은 관세를 인하 또는 감면 조치를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무역 상대국의 다각화를 진행하는 ‘탈미국 현상’의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4월 29일 중서부 미시간 주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온다. 인도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중국도 그렇다”라며, 세계가 요구하는 미국을 연출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에 상호 관세의 일부를 90일간 정지한 후, 각국·지역과의 교섭을 본격화하였다. 정부 대변인 측은 “7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제안을 받았다”라며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일본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관이 이번 주, 두 번째가 되는 본격 협상에 임한다.

다만 동맹국에도 화살을 돌리는 미국과 거리를 두는 움직임도 보인다. 불법 이민 대책 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비판해 온 멕시코는 1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수복을 도모하는 한편,

“깊은 경제 통합과 안전 보장 협력에 근거하는 낡은 관계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였다.

미국 정부의 전(前)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에 접근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도 많아,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을 배제한’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EU의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4월 중순, 싱가포르 총리와 전화 회담을 통하여 환태평양경제협정(TPP) 체약국과의 협력 강화를 협의하였다. 위원장은 2월에 인도를 방문하여 연말까지 FTA 체결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오콘조이웨알라 총장은 “미국은 매우 중요하지만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남짓에 그친다”라고 지적하였다. 총장은 그 외 8할 이상의 국가나 지역이 “규칙에 근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 정책으로 수입 비용을 높여 각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불러들이는 전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방식은 반대로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5월 2일자



美 상원, IUU 어업 처벌법 재상정

美 대통령에 IUU 처벌 권한 부여...중국 겨냥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이 IUU 어업에 연루된 개인, 어선, 국가를 직접 처벌할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국제수산업보호법(The Protecting Global Fisheries Act, S. 1369)이라는 명칭의 해당 법안은 4월 9일, 민주당 소속의 팀 케인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다. 케인 상원의원 집무실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외국의 악의적 행위자를 소탕하고 미국 수산업계를 불공정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케인 상원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악질적 행위자가 행하는 IUU 어업을 억제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 대응 강화의 하나인 이 초당적 법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IUU 어업에 연루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판매, 공급, 구매 또는 이전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외국인 또는 외국 선박에 비자 관련 또는 자산 및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마틴 하인리히 뉴멕시코 상원의원, 그리고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유타 상원의원이다.

IUU 어업은 특정 종에 대한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

는 것, 금지된 어구 사용, 운반선으로 허가 없이 어획물을 전재하는 행위 등 국내 및 국제 어업법을 위반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IUU 어업은 강제 노동, 인신매매, 위험한 작업 환경 및 기타 인권 침해와 자주 연관되어 왔으며, 해양 안보, 해양 생태계 및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과도 관련이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에 IUU 어업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에 대하여 의회에 정기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IUU 어업 퇴치를 미국의 우선 과제로 공식 지정하여 우호국과 협력하고 국제 포럼을 통해 대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유해한 행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IUU 어업의 상당수에 연루되어 있다. 미국 국방부는 서구권 기업과 국가들이 IUU로 인하여 매년 약 27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고 추산하였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커티스 의원은 “중국의 불법 어업 관행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력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업하는 정직한 어업자들을 위축시킨다”라고 말하였다. 커티스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은 공정성을 회복하고 전 세계 어업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22일자



美, 수산물 경쟁력 회복 위한 행정명령 발표

국내 수산업 강화 및 수산물 무역 적자 감소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내 수산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지난 목요일(4월 17일) 발표된 이 행정명령은 수산물 생산량 증대, 미국 어업에 대한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규제 완화, 미국산 수산물 국내외 홍보, 보다 적극적인 수입 규제, 해양 보호 구역의 어업 복원, 업계 제안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미국의 수산물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17일에 발표된 두 번째 행정명령은 태평양 해양보호구역을 상업적 어업에 개방하였다. 태평양 해양보호구역은 2009년에 만들어져 2014년에 확장되었으며, 현재 태평양의 40만 제곱마일(약 13만 km²)에 걸쳐 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수산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하여 미국 수산물 시장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미국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거의 90%가 수입산이며, 수산물 무역 적자는 200억 달러가 넘는다. 불공정한 대외 무역 관행으로 인한 미국산 수산물 경쟁력 약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조치가 필요한 가장 과도하게 규제된 어업"을 파악하고 미국 지역 어업 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미국 국내 어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도록" 요구한다.

또한 상무부 장관과 농무부 장관은 국내 가공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산 수산물의 생산, 마케팅, 판매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미국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교육하고 수산물 구매확대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행정명령에 명시해 있다.

또한 행정명령은 "어업 평가에 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실시간 해양 상황에 대한 어업 관리의 대응력을 향상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행을 현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관 간 수산물 무역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60일 이내에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수산물 무역 전략을 수립하도록 명령받았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17일자



미 NGO “전자모니터링과 Wi-Fi가 선상 복지 증진”

유해 측면 발생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사를 둔 환경 옹호 단체인 The Nature Conservancy와 Conservation International은 전자 모니터링과 Wi-Fi 기술이 해상 선원 복지를 향상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 모니터링이 선원을 위한 Wi-Fi 액세스와 결합하였을 때 근로자 복지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1년간의 연구와 서부 및 중부태평양의 참치 연승선을 대상으로 한 6개월간의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연구진은 기술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3척의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과 Wi-Fi 기능을 모두 설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전자 모니터링의 기능을 활용하여 선원을 해상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

하여 적절한 전자 모니터링이 사고, 부상, 개인 보호 장비의 유무, 예상 근무 및 휴식 시간, 항해 기간 등을 당국에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자 모니터링이 유해한 감시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 모니터링의 재정적 비용 때문에 이 도구를 확장하기 어려우며, 노동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강력한 약속이 마련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말하였다.

연구진은 Wi-Fi가 “선원들이 가족 및 친구와 통화하고, 불만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5년 4월 16일자

러, 산업 선박의 노동 안전 문제 논의

사고 원인과 예방 알림 시스템 개발 필요

산업에서의 노동 보호 문제의 중요성은 위험한 노동 조건을 가진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지표에 의해 입증된다고 러 수산청 산하 공공위원회 회의에서 어선주협회 부회장이 지적하였다. 러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어업에서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63.3%로, 모든 산업 중 가장 높다.

수산업에 대한 주제의 관련성은 노동연구소 고문인 이고르 치린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에 따르

면 중대 사고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2023년 대비 27%) 전반적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어선주협회가 노동 안전 시스템을 규제하는 규범적 행위의 적용 관행을 분석한 결과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어선주협회는 노동 보호 규정을 분석하고 사고 원인과 예방 조치 방안을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였다.

* 출처: Fishnet, 2025년 4월 22일자



中, 유엔 항만국조치협정 가입

IUU 어업 근절 목적

중국은 IUU 어업에 연루된 참치와 수산물의 자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유엔 항만국조치협정(이하, PSMA)에 조인하였다.

중국은 4월 16일에 PSMA의 82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IUU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인 PSMA는 2016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당국이 항구에서 더욱 엄격한 통제와 견제를 시행함으로써 IUU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제 무역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의 PSMA 가입은 책임 있는 거버넌스와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글로벌 노력의 이정표이다. 이번 조치는 PSMA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IUU 어업에 맞서려는 기존 PSMA 가입국 및 중국을 따라 가입할 국가들의 강력한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굴동위(Qu Dongyu)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 사무총장은 말하였다.

중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MARA)는 이번 PSMA 가입 움직임이 2020년 이후 기관 간 연구, 현장 연구, 글로벌 대화 등 많은 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 자원 보호에 대한 중국의 기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 수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연승선단 및 대량의 선망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어업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항구에 들어오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조건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업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한 바 있다.

FAO에 따르면, IUU 어업으로 어획되는 수산물의 가치는 연간 약 230억 달러로, 전체 자연산 어획 수산물의 가치의 1/5에 해당한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1일자

러시아와 오만, 어업 협력 강화

어장 연구와 수산물 공급 기회 확대 협력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만 헤이삼 술탄 간의 협상 중 연방 수산청과 오만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에 어업 분야 협력 각서가 체결되었다.

양국은 수자원의 보존, 관리 및 합리적인 이용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IUU 어업을 근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획 및 가공 방법을 개선하고 수산물의 거래와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작업도 포함된다. 또 다른 협력 분야는 수산업을 위한 과학 연구, 어업인력개발이 있다.

“러시아 및 오만 전문가의 참여로 어장 연구 수행이 향후 수년간 과학 기술 협력의 주요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러연방 수산청장은 말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4월 22일자



칠레 수산물 수출 급증

미국, 칠레 최대 수산물 수출시장 지위 지켜

칠레 외교부 경제국제관계국(ProChile)의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칠레의 수산물 부문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총수출액 8억 2,6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한 갑오징어와 홍합의 판매 실적이 두드러졌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갑오징어 수출액은 4,200만 달러로 336.8% 급등하였고 홍합 수출액은 3,700만 달러로 37.6% 증가하였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연어와 송어가 주도한 수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5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갱이 또한 19.4% 증가한 5,7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칠레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3월 수출액은 총 2억 5,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30.7%를 차지하였다. 이중 연어와 송어(2억 3,200만 달러, 3.7%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어분(600만 달러, 4.4% 증가)과 홍합(300만 달러, 7.3% 증가)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수입국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칠레의 수출액은 43.6% 증가한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어와 송어(1억 1,100만 달러, 41.8% 증가)와 갑오징어 수출(500만 달러, 446.5% 증가)의 급격한 증가가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였다.

브라질은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연어와 송어(7,900만 달러, 8.9% 증가)를 중심으로 8,100만 달러 상당의 칠레산 수산물을 수입하였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39.1% 감소한 4,3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어분 수출이 56.8% 감소한 1,600만 달러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칠레의 수출은 2025년 1분기 총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24억 8,900만 달러에 달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연어와 송어의 판매 호조와 고등어, 갑오징어, 홍합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였다.

연어와 송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한 18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이다. 그러나 가장 큰 성장은 전갱이가 31.7% 증가한 1억 4,500만 달러, 갑오징어가 548.4% 증가한 9,600만 달러 등 소규모 수산물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홍합 수출도 32.1% 증가한 8,600만 달러, 해조류 수출은 20.7% 증가한 3,2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전반적인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위 부문은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어분 수출은 23.7 % 감소한 1억 700만 달러, 어유 및 한천 수출은 7.7 % 감소한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작년보다 1.8% 증가한 7억 4,600만 달러의 총 수출액을 기록하며 칠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연어와 송어 수출이 0.7% 소폭 증가한 6억 7,500만 달러, 어유 수출이 8.3% 증가한 1,200만 달러로 성장을 주도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4월 25일자



中 영양 목표, 수산물 성장 기회 창출

생선, 이상적인 고품질 단백질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식품 및 영양 개발 가이드라인(2025~2030)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고단백 식품의 소비를 늘리라고 강조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품질 단백질이 일일 총 칼로리 섭취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공급 시장인 중국에서 생선과 수산물 소비 증진 여건을 마련한다.

차이나 데일리가 인용한 중국 국가식품영양위원회의 첸 멍산 국장에 따르면 중국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 수준보다 낮고 선진국에 비해 최대 2배나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생선과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권장 사항 중에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이러한 식품을 포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있다. 러시아어선주협회도 급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장수를 위한 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음식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 60g의 단백질, 그중 생선은 “이상적인 공급원”이다.
- 지방 50~70g, 특히 생선 기름과 같은 불포화 지방을 우선적으로 섭취
- 탄수화물 공급원으로서 통곡물 섭취

* 출처: Fishnet, 2025년 4월 29일자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 간소화 위한 협의 시작

전자 인증으로 수산물 공급 최적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산 생선 등 수산물 공급을 단순화하고 해양 및 수산 사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자 인증서 도입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산품질관리감독청장 이사르티니는 “사업체들이 러시아 및 EU에 수산물을 더 쉽

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전자 인증서 관련 협력을 시작했다”라고 강조하였다.

전자 인증서의 도입은 수산물 선적 및 하역 프로세스가 용이해져 러시아와 EU 시장에 상품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Fishportal, 2025년 5월 5일자



밀물과 썰물 사이

이 일 향

사직골
터를 잡아
산 높이로 집을 짓고

비스듬 세월 기대
나를 살라 하시더니

당신은
천만 리 먼 길
홀쩍 떠나갔습니다

밤 들면
떠오르는
우리 집 큰 등불을

모란 꽃밭 닳았다고
남들은 말하지만

나는 이
불빛조차도
감내하기 힘듭니다

밀물과
썰물 사이
밟아가는 아픈 상념
아니다 소리치며
발자국을 지워 봐도

생각은
파도로 나가고
홀로 누운 해안선





4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132% 증가, 수입량 35% 증가

❖ 생산동향(4월 오징어 생산량, 원양산 반입 늘어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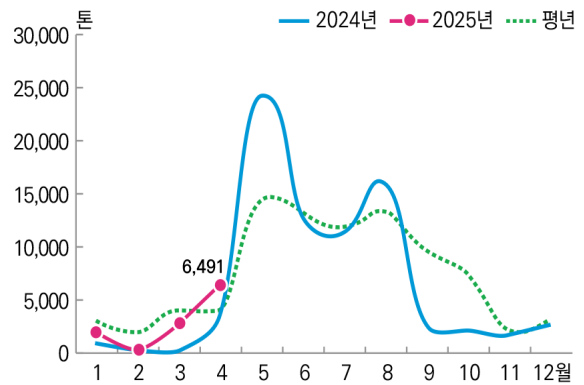
4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 대비 131.5% 증가한 6,491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60.0%, 43.2% 많았다.

연근해 생산량은 금어기(4.1~5.31) 시행으로 13톤에 그쳤다.

수협별 위판량은 경기남부수협 4톤, 여수수협 2톤, 울산수협 1톤 등 대부분 위판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없었다.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6,478톤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많았다.

반면 4월 원양오징어 어획량은 7,240톤으로 전월(1만 4,805톤) 대비 51.1% 감소하였으며, 누적 어획량은 4만 870톤으로 작년(5만 5,115톤) 및 평년(4만 2,596톤) 대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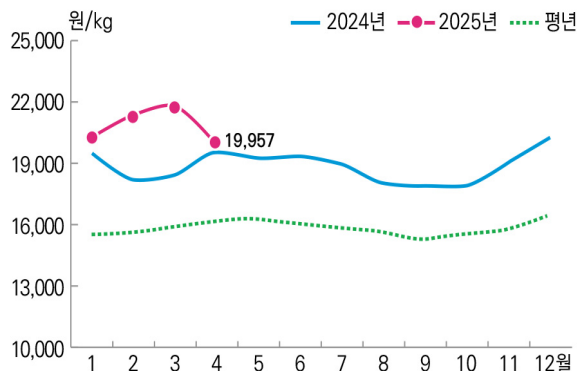


❖ 가격동향(4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8% 하락)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부산공동어시장 위판 실적(1톤 미만)이 거의 없었고 품질이 양호하여 전월 대비 상승하였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만 3,691원으로 전월 대비 2.5% 하락하였으며, 소매가격은 kg당 1만 9,957원으로 전월 대비 8.4% 하락하였다.

원양산오징어(냉동) 소매가격은 kg당 1만 5,967원으로 전월 및 전년 대비 각각 5.3%, 16.3%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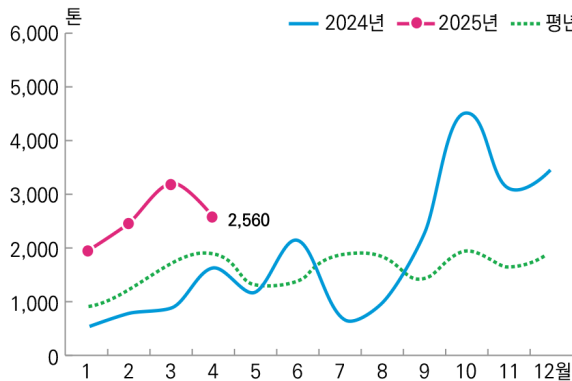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4월 오징어 수출량 전월 대비 감소, 수입량은 증가)

4월 오징어 수출량은 2,560톤으로 전월 대비 19.6% 감소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57.8%, 35.7%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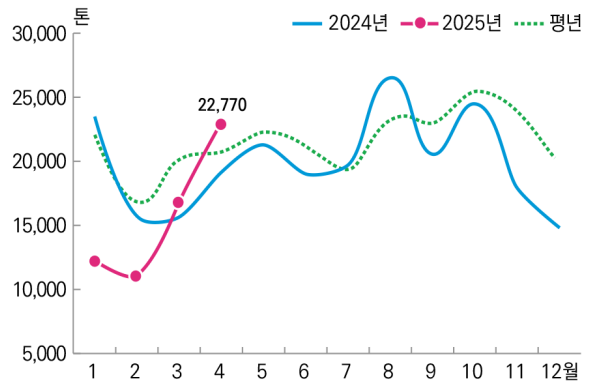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1,31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으로 333톤, 태국으로 173톤 등이 수출되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품이 2,163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202톤, 조미오징어 140톤 등의 순이었다.

4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35.1% 증가한 2만 2,770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20.1%, 9.2% 많았다.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9,692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산(8,489톤), 칠레산(2,691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8,444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1만 1,625톤), 조미오징어(2,514톤), 건조오징어(186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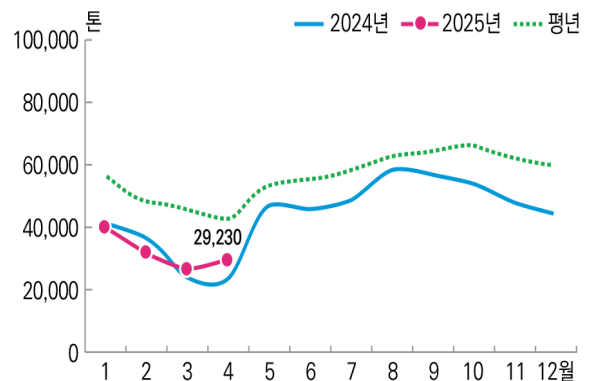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4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8% 감소)

4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 대비 7.6% 증가한 2만 9,230톤으로, 작년 동월 대비 24.4% 많았으나 평년 대비 32.0% 적었다.

연근해산은 금어기 영향으로 9.0% 감소한 6,188톤이었으며, 원양산은 반입량이 늘어 13.2% 증가한 2만 3,042톤이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5월호



4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10% 감소, 소비자가격 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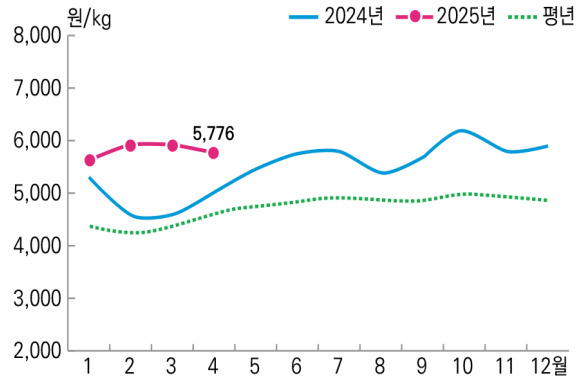
❖ 생산동향(입어 준비기)

원양트롤러업 입어 준비기로 원양명태 생산이 없으며, 2024년 어기 어획물 반입은 2024년 12월 27일 종료되었다.

❖ 가격동향(4월 냉동명태 도매가격, 전월 대비 2% 하락한 kg당 5,776원)

4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407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며, 작년 동기보다는 소폭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일부 대형소매점 할인율이 상승하며 kg당 5,776원으로 전월 대비 2.1% 하락하였다. 하지만,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26.7%, 14.4% 높았다.



❖ 해외동향

○ 미·중 무역 관계에 따른 공급망 불안

미국 알래스카산 명태 대부분은 원물 형태로 중국으로 수출된 후, 중국 내에서 2차 냉동 가공을 거쳐 유럽 및 북미 등지로 재수출되는 구조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산 명태 원물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일부 가공 수산물에만 국한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정치 외교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재를 본격화할 경우, 미국 내 중국을 대체할 만한 대규모 가공 거점이 부재하다.

또한, 알래스카 현지에도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 수출입동향(4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1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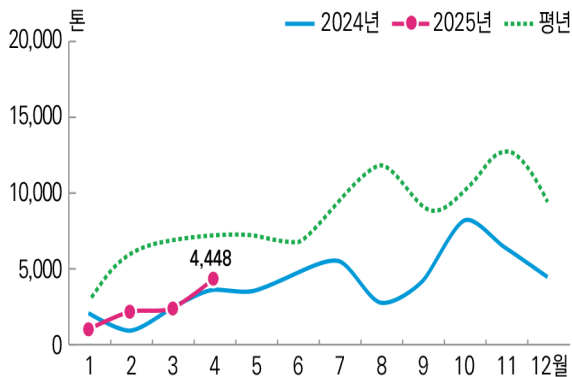
4월 명태 수출량은 4,448톤으로 전월 및 작년 대비 각각 88.3%, 20.7% 증가하였다. 그러나 평년 대비 39.7% 감소하였다.

국가나 제품 형태별로 보면, 냉동명태는 베트남(242톤), 중국(90톤)으로 수출되었고, 냉동연육은 태국으로 3,721톤, 냉동필렛은 튀르키예로 22톤 거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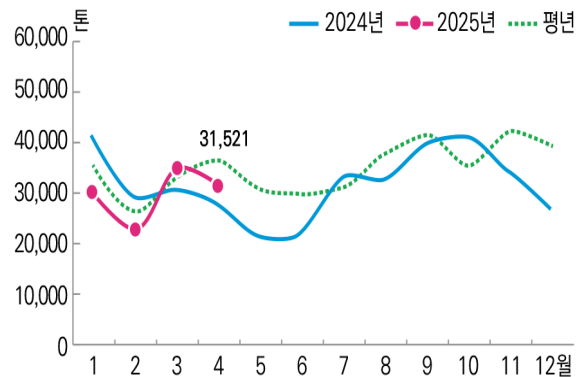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9.7% 감소한 3만 1,521톤이었다. 작년보다는 14.8% 많은 양이었다.

국가나 제품 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145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연육(7,212톤), 미국산 냉동연육(2,013톤) 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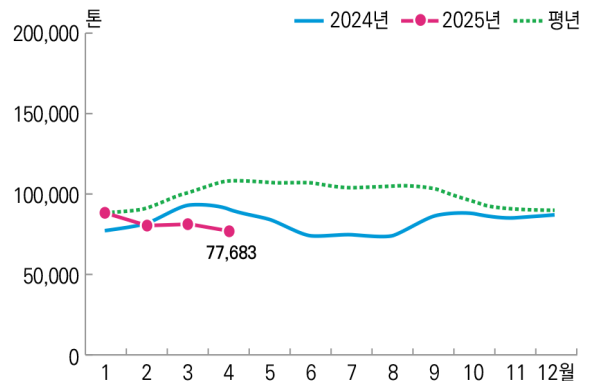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4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4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7만 7,683톤으로 전월 대비 6.7% 감소하였다. 이는 반입이 종료되었고, 수입도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고량은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 각각 13.2%, 28.7% 적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5월호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 사업 대상 모집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되었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



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원의 복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90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 내용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주)의 누리집(www.globalmarifin.com) 내 'Notic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BBNJ 협정 발효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

동아시아 최초 비준국으로서 조기 발효를 위한 의지 표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9일(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의 부대행사로써 HSA(High Seas Alliance, 공해 연합)에서 주관하는 BBNJ 협정 발효를 촉구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벨기에, 칠레

등의 정부 대표 및 NGO 등이 참여하여 BBNJ 협정의 비준 확보 노력을 약속하는 등 협정 발효를 위한 각국의 의지와 협력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으로 HSA에서 감사의 표시로 비준국에 수여하는 배지와 문진을 증정받았다.